

**채식, 환경 보호로
지구를 구합시다!**

**지구 온난화의 80%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
비동물성 제품 사용하기**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7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4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로 방송

인터넷 시청 www.SupremeMasterTV.com/kr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구하세요

침하이 무상사/ 2008, 5, 4, 모나코 (원문 영어)

모든 정부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좀더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역사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부들이 현재 어린이들에게 고기를 덜 먹고 채소를 좀더 먹으라고 채식을 권장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언론의 축복이 있다면 좋겠지요. 매일 신문을 인쇄할 때마다 한쪽에 표제로 '채식을 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 지구를 구하세요.'라고 써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지구를 구하세요.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식을 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 지구를 구하세요.'라는 광고 게시판을 곳곳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게시판과 광고에 '지구를 구하세요. 채식을 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라는 문구도 추가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웃게 될 겁니다.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매일같이 고기를 먹었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사나흘만 먹고 나머지 반은 채식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내 말은, 만약 여러분이 아는 신문기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표제 하나만, 혹은 어디든 괜찮으니 표제를 하나 넣도록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지구를 구하세요. 채식을 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라는 문구를 넣는 거지요. 좀더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우리 텔레비전을 보거나 우리 웹사이트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나는 신문 광고를 내는 데 이미 많은 돈을 썼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모든 언론매체가 지구를 구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사라진다면 그들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행성이자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인 이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

이 스승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GoVeg.php>



CONTENTS

차례

뉴스잡지 197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12월 20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 2 스승님 말씀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구하세요
- 4 다채로운 이벤트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호주/ 코스타리카/ 미국/ 카메룬/ 대한민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몽골/ 포모사/ 중국
- 37 시
만물의 신성한 어머니
- 3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에 관한 청하이 무상사와의 토론
- 43 신기한 감응
귀신을 해탈시키는 방법
- 44 동물의 감성 세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금붕어/ 화재에서 보호자를 구한 개/ 투견공에서 개 보호자로
- 46 채식 시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채식 천국을 만들자
- 48 지구를 구하자
전 지구적인 '소리 없는 쓰나미'를 막아내자
- 50 황금시대의 과학 기술
친환경 에너지 파력 발전
- 52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가나에 대한 노르웨이의 무조건적인 지원
- 53 빛나는 세계 자비상
대니얼 리카즈/ 엠마 하스웰/ 당 갓 박사/ 니나 코스트소바/ 원송이 구조자
- 60 빛나는 세계 영웅상
제임스 헨스 박사/ 라타비사 벨/ 경찰관 브래들리 브라운/
충성스런 개-앤젤/ 영웅 고양아-스탠리/ 영웅견-조지
- 63/ 70 스승님의 농담
적당한 의학 용어/ 장수의 비결
- 66 주요 연락처
- 67/ 71/ 87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와 MP4(다운로드용)/ DVD/ 견본책자
- 68 핫 토픽
유엔환경계획: 2008 지구 챔피언 수상자
- 72 특별 보도
특별한 영상 세미나와 마하비르 상 시상식
- 74 매체 보도
『미국통』지 커버스토리/ 『어스』 잡지/ 『고귀한 야생』
- 77 관음 웹사이트
- 78 사랑의 실천
파푸아뉴기니/ 나미비아/ 중국/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자선·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 84 전세계 연락처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인류는 계속되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함으로써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사태의 긴박성을 꿰뚫어 보시는 청하이 무상사

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전단을 만들어 당신의 위대한 지혜를 나누시며
기후변화의 양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즉각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일깨우신다. ‘SOS-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전단은 심각한 현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지구 균형을 유지할
길을 보여 준다. 스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 채식, 지속 가능한
에너지, 녹색 기술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여러 언어로 된 전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prememasterchinghai.net/sos.htm>



영국

런던 도서박람회에서 열렬한 반응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런던] 스승님의 동물 관련 도서 시리즈의 출간과 동시에,
영국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4일부터 16일
까지 얼스코트(Earl's Court)에서 개최되는 런던 도서박람회
에 참가하는 축복을 받았다. 아랍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는
23,000명이 넘는 전세계 전문가들의 발길을 모았다.

동수들은 다른 유럽 국가 동수들의 지지와 아울러 스승
님의 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밝은 표정을 보여 준 방문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몇몇 주요 출판사와 배급사를 비롯해 도서박람
회의 많은 참가자들이 자세한 연락처를 남겼다. 그들은 관심을 갖고 스승
님의 책들을 자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는 방문자들로부터 “매우 영적이군요!”, “지구
에 청하이 무상사와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들의 판촉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와 같은 많은 긍정적인 말들을
들었다. 『런던 매거진(London Magazine)』과 BBC 월드서비스(BBC World
Service), 『라이프스케이프 매거진(Lifescape Magazine)』 등의 매체에서 스
승님의 책들에 관한 서평을 쓰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전 영국 수상 부인
인 체리 블레어(Cherie Blair) 여사는 최근 출간된 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야생』을 정중하게 받고는 “우리 아들들이 이 책을 읽고 매우 좋아할 거예
요.”라고 말했다. 🌸





아일랜드

내셔널 엑스포 방문객들이 채식하기로 서명하다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더블린]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회 아일랜드 국가 녹색 엑스포(National Greener Ireland Expo)에서 700여 명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겠다고 서명했다. 이 자비로운 영혼들은 모두 우리 더블린 관음 가족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스승님 DVD와 채식 요리법이 담긴 소책자를 담아 나눠 준 자료 꾸러미에 영감을 받았다. 우리 동수들은 엑스포에서 다채롭고 대단히 흥미로운 부스를 차린 다음 각 개인들에게 우리 행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문화유산·지방정부 장관과 농수산·식량 장관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한 스승님의 사심 없는 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전시 홀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이 담긴 비디오를 상영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은 모든 관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 행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



스위스

제네바 국제서적·인쇄박람회

제네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제네바] 스위스 동수들은 파리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제네바 국제서적·인쇄박람회에 참가했다. 15개 국에서 총 555명의 출판자들이 참가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책들을 전시한 가운데 약 십만 명이 참관했다.

박람회에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파스칼 쿠체핀(Pascal Couchepin) 스위스 대통령과 파트리세 무그니(Patrice Mugny) 제네바 시장, 나제르 엘안사리(Nasser El-Ansary) 이집트 문화부 차관, 카트린느 힐버(Katherine Hilber) 상트갈렌(St. Gallen) 주지사 등 귀빈들에게 선물하게 되어 기뻐다. 모두들 기뻐하며 책을 받았다.

동수들은 또한 유명한 정치인이자 작가, 선임 대학 교수이며 현재 '유엔식량권(UN on the Right to Food)'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지글러(Jean Ziegler) 씨도 만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나사·수프림 마스터 TV' 전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단을 전했다. 장 지글러 씨는 우리와 같은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 주었다.

동수들은 다양한 문화와 전문 직업을 가진 많은 출판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 세계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평화와 사랑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고선 큰 힘을 얻었다. 이 밖에 많은 참관객들이 스승님의 책을 보기 위해 우리 부스를 찾아왔다. 그들은 다채로운 사진에 감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한껏 감상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책에 매료되었다.

동수들은 '나사 기후변화', '수프림 마스터 TV', 그리고 스승님의 책에 관한 전단을 많이 배포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 주었다. 박람회가 끝날 즈음 스위스 텔레비전 방송사의 유명한 기자인 마르티나 치바(Martina Chyba) 씨가 5월 28일에 방송되는 자신의 다음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경향의 영양 채식과 비건식에 대해 다룬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더 깨우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고기 섭취를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



이탈리아

채식주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 세미나

이탈리아 뉴스그룹 (원문 이탈리아어)

[페스카라] 이탈리아 페스카라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과 4월에 '나사 SOS' 메시지를 전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중 두 차례의 행사는 한 공정거래 상점에서 열렸는데 40명의 손님들을 끌었다. 세 번째는 '채식: 최고의 건강, 최저의 환경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루초(Abruzzo) 지역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동수들과 지역의 채식주의 의사는 채식 및 채식이 지구에 가져다주는 이로움에 관해 토론했다.

세미나 내용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도서관 직원들은 나무 심기와 지역 문화·음식을 선보이는 부스 설치 등이 예정된 5월 야외 행사 '녹색의 날(Green Day)'에 참여해 달라고 동수들을 초청했다. 또한 직원들은 소규모 토론과 채식 요리 강좌를 열 수 있도록 도서관 지붕에 있는 발코니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페스카라 동수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위기의 긴급함에 대해 알리도록 깨우쳐 주신 스승님께 매우 감사



드렸다. ✨

다채로운 지역 행사 참여

이탈리아 페스카라 뉴스그룹 (원문 이탈리아어)

[로마] 황금시대 5년(2008년) 5월 4일 일요일, 페스카라 센터 동수들은 로마에서 열린 채식 축제에 참석했다. 동수들은 행사장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대형 나사 전단 포스터를 걸어 놓고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 SOS 전단을 축제 방문객들에게 나눠 주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나사 전단을 주의 깊게 읽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 행성의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채식에 관심을 보이며 동수들이 준비한 요리법 인쇄물을 받고 기뻐했다. 명상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많았다. 2년 전에 비해 영성과 채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니 대단히 기뻐다. ✨



[페스카라] 5월 18일, 페스카라 센터 동수들은 아름다운 자연 공원인 리제르바 나뚜랄레 피네타 다눈찌아나 (Riserva Naturale Pineta D'Annunziana)에서 열린 제2회 녹색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정의감과 평화, 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형제처럼 여기는 느낌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행사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글짓기, 사진 촬영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개최됐고 나무 심기, 포크댄스와 아브르초 합창단의 공연도 있었다. 행사장에는 지역 음식과 자연 화장품, 향토 예술품을 전시한 부스도 설치되었다. 이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 관람객들이 많았다.

동수들은 ‘우리 식단을 바꿔 지구를 구합시다’를 주제로 한 부스에서 전단과 채식 요리법 책자를 나눠 주며 스승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다. 많은 사람들이 육류 섭취량을 줄이기로 하고 채식 요리 강좌를 신청했다. 명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받았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엄





다 채 로 온 이 벤 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청난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렸으며, 또한 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중요한 SOS 메시지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된 것에 감사히 여겼다. 🌸



뉴질랜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에서 답을 찾다

오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클랜드] 2008 건강 축제(2008 Health Festival)를 방문한 뉴질랜드 방문객들은 채식이 건강한 생활양식으로 이끌고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2일 ASB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축제는 오클랜드 센터의 사형사자들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아주 완벽한 무대였다. 사람들은 무료 시식으로 제공된 맛있는 채식 음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SOS 기후변화'·'대안적인 삶' 전단에 대해서도 고마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자주 채식을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일부는 식생활을 완전히 뒤바꾸겠다고도 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고귀한 야생』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사진과 감동적인 설명, 그리고 스승님의 애완동물들이 모두 채식을 한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



호주

호주 수상이 SOS 전단을 받다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브리즈번] 브리즈번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부터 매주 시내 중심부에 있는 변화한 퀸스트리트 쇼핑몰(Queen Street mall)에 SOS 전시대를 설치해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해결책에 대해 알리고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있다. 5월 9일 금요일,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수상이 측근들과 함께 쇼핑몰을 지나가 구매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SOS 전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 사저 중 한 명이 재빨리 다가가 'SOS' 전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그에게 건넸다. 러드 수상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몇 초간 'SOS' 전단을 읽으며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정중하게 두 전단을 받았다.



SOS 전단을 들고 있는 호주 수상.

았다. 이 밖에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에서 코알라로 분장한 회원도 SOS 전시대에 들러 '지구를 구하는 채식(veg4earth.org)' 청원서에 서명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호소에 관심을 기울여 하루속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길 기원한다.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 신성한 사랑을 가져오자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리몬 항]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14일 금요일, 우리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리몬 항(Limon Port)에 가서 채식 세미나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했다.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시내에 전단을 돌리며 이 행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다. 강연 당일 아주 멋진 분위기 속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동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스승님의 DVD를 상영했다. 채식 음식도 제공했는데, 참석자 중 몇몇은 가족들과 나눠 먹기 위해 음식을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 어떤 손님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채식 음식을 준비했는지 동수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우리는 다양한 채식 요리법뿐만 아니라



라 많은 채식 정보도 제공했다. 몇몇 손님은 이미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단체가 이 건강한 식

생활을 홍보하는 모습에 매우 기뻐했다. 일부 손님은 방편법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사랑으로 봉사할 때 사람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리베리아] 동수들은 5월 3일과 4일, 구아나카스테(Guanacaste)의 리베리아(Liberia) 시에서 열린 도서 전시회에서 'SOS' 전단을 배포했다. 방문객들은 전단을 매우 잘 받았고 우리 행성의 현 상황에 대해 알려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심지어 군중 두 사람은 자청해서 전단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고 수행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수들은 15년 동안 채식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작가 플로르 구티에레즈(Flor Gutiérrez) 씨를 만나자 기뻐했다. 현재 아라후엘라(Alajuela) 시에 있는 화산로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녀는 우리 회원들에게 용감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며 칭찬했다.

동수들은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구의 현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행복했다. 🌱

[바가세스 시] 최근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라포투나데바가세스(La Fortuna de Bagaces)에서 'SOS 기후변화'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접하는 축복을 누렸다. 전기세 고지서를 배달하는 한 남자는 자원해서 200장의 전단을 배포해 주었으며, 한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눠 줄 요량으로 더 많은 전단을 요구했다. 거의 천 장 정도가 이 도시에 배포되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이 정보를 알려준 데 대해 동수들에게 감사했다. 일부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많은 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언론매체가 고귀한 생활양식을 지지하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산호세] 지역 매체들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유도함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채식 생활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변호사이자 '채식 윤리 홍보 협회(Asociación para la Promoción de la Ética Vegetariana, APEV)' 회장인 마르셀로 갈리(Marcelo Galli) 씨이다. 그는 잡지와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채식 생활에 대한 전단을 배포한다. 갈리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칭하이데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스승님께 진심에서 우러난 메시지를 보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그의 노고를 표창하고자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28일 감사 편지와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수여했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미식 잡지인 『레비스타 사보레스(Revista Sabores)』 다음 호에서는 채식 생활 방식에 대해 9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게재한다. 이 건설적인 노력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 없는 고귀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

지구의 날 우리 행성 구하기 활동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하이오] 어머니 지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기 위해, 오하이오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9일 지역 '지구의 날' 행사에서 사랑스런 부스를 설치했다. 2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 줄을 서서 'SOS' 전단을 받아 가고 긴박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한 어린 소녀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훑어보는 즉시 아주 마음에 들어했는데, 선물로 그 책을 받고선 몹시 기뻐했다. 우리는 이 행사에서 다른 단체들도 비슷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매우 흥분되었다. 이 단체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주리] 오하이오와 미주리 동수들은 4월 20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서 5천 장의 'SOS'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방문객들과 비건 음식을 함께 나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한 채식 바비큐의 맛에 놀라워했다. 한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비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많이 먹어 볼 거예요." 동수들은 손님들에게 쉽게 쿡단백을 구입하고 많은 요리법을 구할 수 있는 채식 웹사이트도 소개해 주었다. 행사에 참가한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말했다. "지구의 날은 훌륭한 행사입니다. 이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우리 각 개인이 더욱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장 프랜시스 슬레이(Francis G. Slay).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어린이들에게 채식을 권장하다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일리노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동수들은 시카고 하이트(Hayt) 초등학교의 5개 반 147명의 학생들에게 채식 점심을 제공하고 육식과 온실가스 배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5학년 교사인 낸시 타피 콜(Nancy Tarpey Cole) 여사는 동수들과 긴밀히 협력해 세미나를 준비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맛있는 채식 음식을 즐겼고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즉시 흡수할 준비가 돼 있는 순진한 눈망울로 귀 기울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다. 이 경험에 감동받은 동수들은 이 사랑스런 아이들이 이 '지구의 집'에서 계속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소중한 지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

더욱 푸른 세상 만들기

미시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시건] 지역 동수들은 4월과 5월에 더 푸른 세상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 위해 '대(大) 미국인 육식 추방의 날(Great American Meatout)' 행사와 '지구의 날 엑스포(Earth Day Expo)', '녹색 거리 박람회(Green Street Fair)'에 참가했다. '지구의 날 엑스포'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긴급 메시지를 6천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방문객들과 채식의 이

로움 및 채식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 대체 에너지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수프림 마스터 TV'와 스승님 책을 홍보해 준 『심신과 영혼(Body, Mind and Spirit)』 잡지 발행인은 잡지에 스승님에 대한 기사를 실자는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수들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히 여겼다! 🌱



고무적인 '활력! 엑스포'

조지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조지아] 4월 26일과 27일에 지역 동수들은 조지아세계회의센터(Georgia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 소녀.

다채로운 이벤트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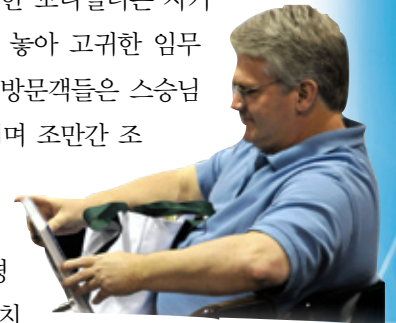
Worl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

‘활력! 엑스포(Alive! Expo)’ 행사에 참가했다. 약 1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모은 이번 행사는 자연적인 대체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서 발산되는 사랑의 분위기에 고양되었다.

그들은 각각 SOS DVD·전단·펜과 채식 요리책자 등이 담긴 선물 가방을 받았다. 어떤 채식인들은 육식을 하는 친구들에게 나눠 줄 선물 가방을 부탁하기도 했다. 옆 부스를 운영하는 한 보디빌더는 자기 전시대에 채식 요리책을 놓아 고귀한 임무를 돕겠다고 했다. 몇몇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며 조만간 조지아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수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채식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라는 특별 세미나도 열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아우성

버지니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워싱턴 D.C.] 4월 20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천 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내셔널몰(National Mall)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관리와 후보자, 유명인사들의 연설과 음악 공연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서는 선거인 등록도 진행되고 ‘기후변화’ 캠페인이 국회 내에서 통과되도록 요구하는 1천여 곳의 대학 캠퍼스 명단판도 공개되었다. 행사는 전국 다른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버지니아 센터 부스는 수백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들은 ‘슈프림 마스터 TV’ 프로그램을 보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육식과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과 채식이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종이 사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용을 금하는 주최측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수프림 마스터 TV' 펜과 자석, 'SOS' DVD를 나눠 주었다. 한 동수는 '사랑해 주세요, 저를 먹지 마세요'와 '채식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와 같은 메시지가 새겨진 창의적인 스탬프를 주문해 방문객들의 얼굴과 손에 찍어 주었다. 이는 사람들의 기분을 유쾌

하게 만들면서도 지구에 대한 관심 같은 심각한 일도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



2008 아시아 축제

5월 17일, 버지니아 동수들은 음악과 오락거리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선보이는 제2회 연례 아시아 축제(Fiesta Asia)에 참가했다. 이번 축제에는 약 2만 명의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다. 동수들은 부스에서 천국의 만두(Heavenly Dumplings), 천상의 여름 롤빵(Celestial Summer Rolls)과 천사 스위트콘(Angel Sweet Corn)과 같은 채식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알렸다. 많은 고객들이 음식 맛이 뛰어

나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식당이 있는지 물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단체의 자비로운 정신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행사장에는 스승님의 힘이 항상 머물러 있어 사랑의 기운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



제1회 미국 채식 자랑 퍼레이드

뉴욕 뉴스그룹 (원문 영어)

[뉴욕] 5월 18일, 제1회 채식 자랑 퍼레이드(Veggie Pride Parade)가 뉴욕 시 그리니치(육류 제품 포장 구역)에서 열렸다. 많은 채식 단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채와 동물 권리 활동가, 지역 채식 식당
업자들이 모여 이 숭고한 생활 방식의 환
경·영성·건강 상의 이로움을 찬미했다. 뉴욕·보스턴·뉴저
지·버지니아·오하이오·켄터키의 동수 100여 명도 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TV’ 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으로 ‘SOS, 육식으로
야기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교육적이고 아름다운 팻말
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그리니치에서 워싱턴 광장 공
원(Washington Square Park)까지
“채식하세요! 환경을 보호하세요!”
를 큰 소리로 즐겁게 계속해서 외쳤다. 입
문한 채식 어린이와 청소년, 그

리고 두부를 먹고 자란 검은 래브라도견 심바(Simba)가 우리 단체 행
렬을 따라 자랑스럽게 걷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이 퍼레이
드는 여러 국영 TV 채널과 신문사를 비롯해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국
에 이르는 주요 매체에 보도되었다. 🌱

이 행사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TV’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615c.php>

세계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즈』, 『1010원즈(WINS)』
와 지역 신문 『세계일보(世界日報)』에서 이 행사를
상세히 보도하다.



‘채식! 환경 보호!’ 메시지 나누기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4월 20일 산타모니카 부두(Santa Monica Pier)에서 열
린 ‘지구의 날 박람회’에 참가해 3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SOS 기후변화’ 메시지와 ‘수프림 마스
터 TV’ 정보를 나눠 주었다.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매우 기쁘게 전단을 받아 갔다. 이어서 4
월 28일과 29일에는 롱비치 시 대학 환경 박람회(Long Beach City College Environmental Fair)에
서 이들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
보 부스를 차렸다. 첫째 날에는 맛있
는 채식 식사를 대접한 뒤 한 동수가
‘SOS’ DVD를 상영했다. 참석한 젊은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폭 넓은 관련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다음날 동수들은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 채식과 'SOS 지구 온난화' 메시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과 나눴다. 부스를 찾은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은 맛있는 음식과 'SOS' 메시지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 기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TV 방송국 팀원들은 “여기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박람회에 와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했다. 이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SOS 기후변화' 메시지를 전하는 일련의 활동 중 성공을 거둔 또 하나의 행사였다. 🌟



카메룬

대학가와 학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다

카메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카메룬] 채식주의 개념을 널리 퍼뜨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낀 카메룬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카메룬의 대학과 각급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대안적인 삶' 전단과 '나사 기후변화 보고서' 전단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로써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채식에 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으며, 다른 많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 낳을 가슴 아픈 복합적인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전단을 받은 학생들은 지구를 구하는 데 꼭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 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 캠페인은 두알라(Douala)와 산록지대인 부에아(Buea)에서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방문한 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





인 두알라 대학교와 부에아 대학교를 비롯하여 이 두 지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 이른다. 동수들은 카메룬의 모든 대학들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를 답파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대한민국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지구 온난화 위기를 경감시키기 위해 한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모든 기회를 동원해 다른 사람들에게 채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서울 회원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8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약식에 참여해 한국 젊은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채식을 장려했다. 동수들은 이날 채식 시식회를 주최하고 채식의 중요성과 육식 중심의 식단이 미치는 해악에 대한 강연을 하는 한편 '나사 기후변화 보고서'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국회의원, 전교조 대표자와 교사들은 3월 30일을 '아동·청소년 건강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약 3주 전인 3월 30일에는 백여 명의 동수들이 SOS 팻말을 들고 관련 메시지를 스피커로 방송하고 서울 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 행사에서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확실한 해결책인 채식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고자 맛있는 채식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인천 동수들은 다른 천여 명과 함께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기온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환경청과 산림청의 요청에 따른 나무 5천 그루 심기에 동참했다.

4월 20일 서울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릴 때는 날씨가 여름 같아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행사에서 회원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1,500명이 넘는 방문객



들에게 채식을 대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로 기후변화를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놀라워했다. 한국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윤준하 씨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고기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제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한국어판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한국어판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사진 1 참고) 이 책은 한국에서 출판된 이래 대형 서점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교보문고 홈페이지의 ‘인터넷 일간 집계’ 목록에 올라 있다. 이 책은 작가가 동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작가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평론가들은 이 책이 한국인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한편 동물을 사랑하고 더욱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국 내에서 동물 관련 책으로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시각과 처우가 한층 개선되었음을 알리는 좋은 징조이다.





환경 음악회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끌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한국 동수들은 부산 센터가 주최한 환경 음악회와 노래 자랑 대회라는 멋진 기회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채식이 그 해결책임을 소개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3일, 해운대 대천공원에서 열린 '지구 사랑 초록빛 음악회'는 많은 방문객들을 모았다.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를 나온 많은 사람들도 사형사자들이 행사 두 시간 전부터 공원 입구에서 나눠 준 'SOS' 전단과 초청장을 받아 행사에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색소폰 연주, 대금을 비롯한 한국 전통 악기 연주, 플루트 연주, 한량무 등을 선보였으며, 한 작곡가는 오카리나를 연주해 자연과 동물들의 고통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방문객들은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대한 퀴즈를 풀고 '수퍼림 마스터 TV'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 자랑 대회에도 참여했다. 동수들은 참가자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부산 KNN 방송국은 '뉴스 아이' 시간에 이 행사를 보도했다. 🌹



은총이 가득한 비디오 세미나

[울산] 5월 13일, 지역 동수들은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영상 강연회를 개최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다. 동수들은 포스터와 전단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참석자들은 문화센터 복도에서 다과를 즐기며 스승님의 출판물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약 150명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DVD와 전단, 견본책자, 울산 센터 연락처, 스승님의 강연 자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료 등으로 가득 찬 가방을 선물받았다. 우리는 먼저 'SOS 기후변화' 비디오를 상영한 데 이어 스승님의 강연을 상영했다. 33명이 방편법을 배웠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강연회를 개최해 이 법문을 전수해 준 데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다. 채식 음식도 대접받은 참석자들은 밝은 미소로 행사장을 떠났다. 동수들 모두 스승님의 사랑을 울산에 전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산청 약초 축제

산청 군청의 초청을 받아 우리 동수들은 5월 5일 제8회 산청 약초 축제에 참가해 우리 행성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이날은 마침 어린이날이라서 전국에서 수천 명이 행사에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와 채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했으며 동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한 부부는 우리 협회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했으며 어떤 할아버지는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이 행사에서 환경 음악회를 열어 노래와 춤, 오카리나 및 한국 전통 악기인 대금 연주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채식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알렸다.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은 우리 행성을 구하기 위해 고귀하고 건강한 채식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태국

채식하도록 일깨워 온난화를 막자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방콕] 지난 몇 개월간 태국 동수들은 'SOS' 전단을 배포하고 'SOS' 비디오를 보여 주고 채식 음식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식생활을 바꿔 지구 온난화를 멈추자고 격려했다.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동수들의 활동에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태국 적십자사의 국립혈액원 직원들과 혈액 기증자들이었다. 우리는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30일 이들에게 채식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사랑과 자비로움이 충만한 분위기에서 'SOS' 비디오를 상영했다. 이에 많은 참석자들이 깨우침을 얻어 채식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귀중한 지구를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동수들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바꾸도록 돕고자 채식과 방콕 주변에 있는 채식 식당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이어서 4월 5일에는 왕실 행사와 국가 행사가 열리는 방콕의 중심부 사남루앙(Sanam Luang)에서 더 많은 'SOS' 전단과 다양한 채식 고기가 포함된 천 명분의 맛있는 찰밥을 나눠 주었

다. 사람들은 동수들이 제공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한편 전단을 읽고 'SOS'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노력은 4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지역 동수들은 태국 중부의 룽부리(Lopburi) 지역에 가서 삼마키탈사원(Samakkee Tham Temple)에서 열린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200명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각양각색의 비건 고기와 디저트 등 풍성한 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채식 식품점에 대해 문의하는가 하면 고기를 두부로 대체하고 생선 소스를 간장으로 대체하고 싶어함에 따라 매우 큰 힘을 얻었다.

그후 4월 20일에는 방콕 버스티미널에서 'SOS' 전단과 채식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었다. 기쁘게 샌드위치를 받은



600명 중 한 중년 여성은 자기 친구들에게 주고 싶다고 남은 전단을 모두 요청하기도 했다.

룽부리의 채증 감량 학원이 살을 빼서 건강해지도록 격려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5월 2일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소 봉사자, 심신의 전체적인 건강을 원하는 시민들, TV 채널 5의 매체 기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채식으로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이라는 주제로 아름답게 장식한 부스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가득 전시했다. 많은 손님들은 'SOS 지구 온난화' 메시지와 우리가 제공한 채식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결들인 콩고기 구이를 즐겼다.

우리와 환경을 돌봐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모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나갈 것이다. ✿



싱가포르

성공적인 기후변화 순회 행사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순회 행사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토아파요(Toa Payoh)의 주택개발공사 청사(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ub)에 부스를 설치했다.

멋지게 장식된 우리 부스는 슈퍼마켓·사무실·간이식당·화물터미널로 둘러싸인 변화한 상업 중심지에 자리잡았다. 우리는 'SOS 기후변화' 전단 2만 4천 장을 배포하는 한편 스승님의 파리 법문과 기후변화에 대한 나사 보고서 등이 포함된 '수프림 마스터 TV' 영상물을 상영했다. 또한 유명한 채식인들의 모습이 담긴 아름다운 포스터와 스승님의 시 '아기 돼지의 말'도 전시했는데, 두 명의 십대가 휴대전화로 시 포스터를 찍는 모습이 보였다.

순회 행사와 전단은 방문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동수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몇 군데 회사 대표들도 회사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자사 직원들에게 환경 문제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고무적인 반응으로 인해 동수들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세요!"라는 말을 전할 기회를 더욱더 많이 얻음으로써 다 함께 우리의 귀중한 지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홍콩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구를 구하자는 메시지 보내기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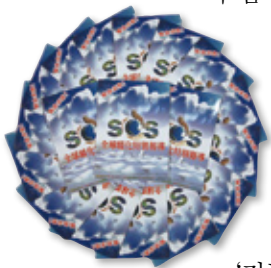
[홍콩]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아름다운 지구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홍콩 동수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전광판 광고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채식하고, 나무를 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140개의 전광판이 홍콩의 가장 변화한 지하철역과 기차역에 설치되었다.

팸플릿과 'SOS' 서류 폴더

뉴스잡지와 '수프림 마스터 TV' 웹사이트에서 고른 기사와 정보를 정리해 만든 '지구 온난화' 팸플릿을 중문판 5만 부, 영문판 2만 부 인쇄해서 홍콩·포모사·미국에서 배포했다. 그 결과 대단히 긍정적이고 굉장한 반응이 돌아왔다. 홍콩에서는 478개 학교 교장이 팸플릿을 받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팸플릿 1만 부와 'SOS' 서류 폴더 5만 개가 전해졌다. 일부 교사들은 교실과 환경 보호 활동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SOS' 전단과 지구 온난화 DVD와 채식 요리법

지금까지 'SOS' 중국어 전단 12만 장, 영어 전단 1만 5천 장, '지구 온난화' DVD 2만 장, 채식 요리법 소책자 5천 부가 배포되었다.

우편 전달

처음으로 홍콩 우체국과 협력해 『지구 온난화』 소책자를 여러 분야의 지도적인 인사 1만 5천 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동수들도 시간과 돈을 들여 홍콩 각지의 사람들에게 2만 장이 넘는 전단을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나눠 주었다.

TV 진행자에게 편지 쓰기

동수들은 홍콩에서 잘 알려진 TV 진행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지위를 활용해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함으로써 매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동수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영향을 받은 많은 매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위기에 대해 조사하고 채식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환경 보호에 관한 신문 칼럼도 게재되었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으로 보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존재들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애쓰는 채식 대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 🌱

환경을 위한 호소: 관심을 갖자! 행동하자!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홍콩]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0일, 지역 동수들은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 상업 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탄소 중립 지구의 날’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 주제는 ‘적게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였다.

동수들은 참가자들에게 채식 음식과 ‘SOS’ 소책자·DVD를 제공해 채식을 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렸다. 우리는 또한 홍콩 환경보호서 환경 보호 주임인 조안 융(Joanne Yung) 씨와 홍콩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총책임자인 에드윈 라우(Edwin Lau) 씨를 포함한 저명한 인사들도 인터뷰했다. 모든 손님들과 행사 참가자, 매체 대표들은 다채롭고 맛있는 채식 음식에 즐거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슈퍼모델이자 환경 대사인 조슬린 루코(Jocelyn Luko) 씨는 “채식을 한번 해보고 싶군요. 채식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도 유익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걸어다니는 나무’인 환경주의자 클리프 스펜저(Cliff Spenger) 씨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지구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은 널리 알려져 기후변화 고삐를 잡는 중요한 발걸음인 채식을 선택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





인도네시아

채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고양

욕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욕야카르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2일과 13일 욕야카르타 센터 동수들은 신의 안배로 멋진 기회를 얻었다. 국제사랑협회(The International Loving Association, INLA) 욕야카르타 지부의 초청을 받아 3회 연속 세미나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최신 정보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채식과,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채식의 긍정적인 기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청된 강연자들은 모두 채식주의였으며, 그중에는 유명한 소설가인 데위 '디' 레스타리(Dewi 'Dee' Lestari)와 프라스스토 사트위코(Prasasto Satwiko)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차례의 세미나는 4월 12일 열렸는데, 아트 마자야 욕야카르타 대학교(Atma Jaya Yogyakarta University)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300명이 참석했으며, 족자 국립박물관(Jogja National Museum)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자들과 예술가들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4월 13일 마젤랑(Magelang) 시 아흐마드 야니 빌딩(Ahmad Yani Building)에서 열린 세 번째 세미나는 마젤랑 시 부시장이 개최했으며, 각 분야에서 500명의 손님들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이러한 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매체, 정부 공무원들이 기후변화의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채식이 그 효과적인 해결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중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마친 한 세미나에서 욕군사관학교 관리가 사관생도 4천 명을 위해 이와 비슷한 세미나를 열어 달라고 동수들에게 요청했다. 동수들은 신께서 이렇게 깨우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다. 우리 모두 이 세계가 경이롭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 집으로 계속 남게 되기를 기도한다. 🌸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새로 나무를 심다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자카르타]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나무 심기 노력을 지원하고자, 지역 동수들은 황금시대 5년(2008년) 3월 2일, 수도의 북쪽 해안을 따라 무아라앙케(Muara Angke) 맹그로브 숲에 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도시 공원과에서 전개한 이 사업은 생태를 복원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중 홍수를 막기 위한 것이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다. 자카르타 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여 주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3월 20일 동수들은 가족들과 인도네시아 남부 자카르타 대학교 데포크(Depok) 캠퍼스에 여러 종류의 나무 140그루를 심었다. 참가한 일부 사람들은 연꽃 호수를 청소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기차역과 다른 변화한 곳에서 'SOS' 전단을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계획된 모든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이 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나무들을 심을 계획이다. ➡



네 팔

석가 탄신일 행사

카트만두 뉴스그룹 (원문 영어)

[카트만두] 황금시대 5년(2008년) 5월 20일 석가모니불의 탄신 2552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이 되면 수천 명의 신자들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스와얌부나트(Swoyambhu Nath) 사원에 와서 이 위대한 스승에게 존경을 표한다. 원숭이 사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스와얌부나트 사원은 불교도들에게 성스런 참배 장소의 하나로 여겨진다. 네팔 동수들은 이 기회를 맞아 이 사원에서 스승님의 'SOS 지구 온난화' 전단과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귀중한 정보를 감사히 받았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동수들이 게시판에 붙여 둔 채식 홍보 포스터를 가져가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채식을 하고 있다면서 정말 우리 동수들이 하는 일에 고마워했다.

사람들이 스승님의 전단을 손에 들고 "영웅이 됩시다. 채식을 합시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고양된 경험이었다. ➡



몽골

'수프림 마스터 TV'가 국제공항을 빛낸다

울란바토르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울란바토르] 스승님의 은총과 더불어 한국 동수들의 신실한 노력과 재정적 지원 속에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징기스칸 국제공항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무료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유일무이한 건설적인 TV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몽골 동수들이 먼저 공항 책임자를 만나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자 모두들 큰 관심을 보였으며



너그럽게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방송을 허락해 주었다. 그중 몇 명은 방법법을 배우기도 했다. 동수들은 또한 직원들에게 채식 요리법도 가르쳐 주었다. 현재 동수들은 공항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를 게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포모사

포모사에 채식과 온난화 저지 바람이 불다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보도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전날 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환경 보호, 동물 보호, 종교, 채식 등에 헌신하고 있는 50여 개 단체와 함께 '채식과 온난화 저지 행동 연맹'을 공동 결성하고 '채식하세요, 지구가 Cool해져요, 2008 지구의 날 백만인 서명 운동' 행사를 받기 위해, 대중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환경 보호 생활 방식을 택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 기관, 학계, 연구 기관, 그리고 전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다.

4월 18일, '채식과 온난화 저지 행동 연맹'은 환경보호국을 방문해 '채식, 온난화 저지 선언'을 발표하며 행동으로써 이상을 표현했다. 화스(華視) 방송국, 민스(民視) 방송국, 공공 TV 방송국, 다아이(大愛) TV 방송국과 『중국시보(中國時報)』 등 매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4월 19일에는 타이베이 시 원산(文山) 구의 39개 리 주민들이

타이베이 시 동물원 앞 광장에서 '즐거운 환경 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하는 장기적인 환경 보호 공약에 서명했다. 우리 국제협회도 여기에 참가했다. 하오룽빈(郝龍斌) 타이베이 시장과 천스홍(沈世宏) 환경보호국 국장, 저우보야(周柏雅)·리칭위안(李慶元) 타이베이 시의원 등이 행사장에 와서 서명에 응했다. 저우보야 의원은 특별히 우리 부스에 와서 서명하면서 모두에게 채식과 나무심기,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을 실천해 지구를 구하자는 스승님의 호소에 동감한다고 말하고, 이는 모든 지구인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 행사를 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4월 20일, 우리 협회는 동물원에서 열린 ‘지구를 잘 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축제에 초청받았다. 이 행사에서는 ‘채식과 온난화 저지 선언’을 홍보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5천여 명분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동물원의 예제성(葉傑生) 소장은 대중들에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를 타는 대신 많이 걷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연설했다. 환경보호국 천스홍 국장은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채식을 하는 행복한 생활 방식을 따르자고 호소했다. 국제협회 대표는 참가한 수백 명의 내빈에게 우리 몸과 환경 보호에 미치는 채식의 좋은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행사 마지막에, 환경보호국장과 동물원장,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공동으로 ‘환경 보호로 지구 살리기 그림 대회’에 참가한 108명의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국제협회에서는 상품을 제공해 이들 환경 보호 소영웅들을 격려했다.



『대만일보(台灣立報)』와 『중국시보(中國時報)』에서 우리 협회 대표들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청원서에 서명하는 타이베이 환경보호국 천스홍 국장.



하오룽빈 타이베이 시장과 리칭위안 타이베이 시의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자원 봉사자들.



‘환경 보호로 지구 살리기 그림 대회’ 수상자들.

4월 21일, 국제협회 회원들은 린홍초(林鴻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채식과 온난화 저지에 관한 공청회에 초청되어 안전한 채식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이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 부서를 참석시키는 외에 온난화 저지와 채식에 대해 장기간 연구해 온 차이쑹린(柴松林) 교수와 우보빈(吳博斌) 박사, 저우자푸(周家復) 박사 등 유명 학자들을 초청해 채식의 중요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중앙학술연구원 물리학 연구소의 저우자푸 박사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유엔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내빈들에게 온실



린홍초 국회의원이 입법원에서 채식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자는 내용의 공청회를 열다.

가스(gas)의 거의 모든 근원은 축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간과되어 온 온실가스인 일산화질소의 65%는 축산업에서 생산되는데,



(왼쪽부터) 동더보 환경보호서 수석비서관, 천자이진(陳再晉) 위생서 부서장, 린홍초 국회의원, 우보빈 전(前) 지룽 위생국 국장.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중앙학술연구원 물리학연구소의 저우자푸 박사.



존경받는 학자인 차이쑹린 교수.

러 국회의원과의 시의원, 각계각층의 엘리트들이 ‘채식하세요, 지구가 Cool 해져요’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제자들을 이끌어 전세계 각지에서 지구를 보호하는 고귀한 행위를 펼치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의 헌신과 노고에 경탄해 마지않았다.

모두의 노력 속에 포모사 각계각층에서 채식과 온난화 저지에 대한 호소에 호응을 보내오기 시작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천충신(陳重信) 환경보호서 장관과 황즈팡(黃志芳) 외교부 장관, 장징썬(張景森) 경제건설자문위원회 부주임은 ‘지구의 날’ 당일 지구의 기온을 내리는 ‘1일 채식하기’를 실천수범하기도 했다. 환경보호서는 또한 ‘육식을 줄여 지구의 기온을 내리자’는 기획을 ‘지구의 날’ 행사의 하나로 삼았다. 타이베이 시정부는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여 각

급 부서에 이를 홍보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98배에 이르므로 채식을 하여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4월 22일,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2008 세계 지구의 날: 지구와 함께 살아 숨쉬자’라는 계획 하에 올해를 ‘대만 탄소 감축 원년’으로 삼기로 정식 선언했다. 환경보호서는 탄소 감축 실적이 뛰어난 지방 부서를 표창하는 한편 탄소 감축 세미나와 그와 관련된 전시 행사를 개최했으며, 모든 부서에 오후 휴식 시간 동안 1시간 소등하고 엘리베이터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국제협회는 환경보호서의 행사에 참여한 뒤 린홍츠 국회의원과 리신(李新) 시의원의 협조 하에 국회에서 채식 시식회를 열어 4백여 명에 가까운 귀빈들의 찬탄을 받았다. 국제협회 대표는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긴급 위기 상황과 온난화 저지를 위한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 위생서장 허우성마오(侯勝茂), 환경보호서 수석비서관 덩더보(董德波) 등 여



린홍츠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리신 타이베이 시의원.



왕진핑 입법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지웨이(吉喆) 중화생활건강협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급 부서에 이를 홍보하도록 요청하였다.

‘2008 지구의 날 백만인 서명 운동’은 타이베이 시와 현에서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6월 5일에 서명 운동 성과를 공표해 정부 측에 채식과 온난화 저지 정책을 제정하도록 호소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환경 보호 단체와 인사들이 우리 지구 어머니를 구하는 전 국민적 행사에 참여하리라 믿는다. 🌸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이란] '2008 지구의 날 지구를 구하자' 백만인 서명 운동을 지원하

고자, 이란 동수들은 4월 19일 위안산(眞山) 향 이센(逸仙) 촌 활동센터에서 '지구 보살피기 채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란 현 교육처와 환경보호국은 4월 25일에 우웨이(無尾) 향 생태 마을에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환경보호국 장관과 이란 현의 초등학교·중학교 환경 보호 담당 교사들과 교장, 주임을 비롯해 약 120명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동수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 뒤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우리는 참석자들에게 풍성하고 환경 보호적인 채식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 🌸



[신주] '채식을 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긴급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칭화대학교 광음회 채식 동아리와 자오통대학교 도서관, 자오통대학 음악원이 연합해 4월 15일과 16일에 자오통대학 도서관에서 음악회와 온난화 저지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신주 정용진(鄭永金) 현장은 동수를 통하여 채식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즉시 '지구의 날'에 현정부 전체 직원과 함께 하루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이란 현의 모든 초·중학교도 이 운동에 호응할 것을 호소했다. 정 현장의 현명한 결정에 감동한 동수들은 '지구의 날'에 600명분의 맛있는 건강 채식 요리를 준비해 현정부 전체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식사 후 정 현장은 '채식과 온난화 저지 선언'에 서명하는 한편 모두에게 매일 365일을 '지구의 날'로 여겨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난터우] 국립지난국제대학(國立暨南國際大學)의 요청을 받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4월 22일 대학 캠퍼스에서 지구 온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난터우 현정부 환경보호국 옌자셴(顏嘉賢) 국장을 비롯해 위생국 영양사, 교육처 장학관, 난터우 현 황슈nü(黃秀女)·랴오즈청(廖志城)·쉬아간(許阿甘) 의원, 지난국제대학교 총장과 교수, 학생들, 푸리(埔里) 국제라이온스 클럽 지역 회장과 대표, 난터우 현 각급 학교 교사 등 300여 명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환경보호국은 이번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국장이 직접 참가했다. '지구의 날'에는 현정부 100여 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전부 캐주얼 복장을 했으며 탄소 감축 팀을 조직해 환경 보호 개념을 홍보하는 데 나섰다. 현정부 직원은 4월부터 시작해 매월 1일과 15일



다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에 채식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대중에게 육식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생국은 이번 기회를 빌려 ‘매일 다섯 가지 채소와 과일’이라는 영양 개념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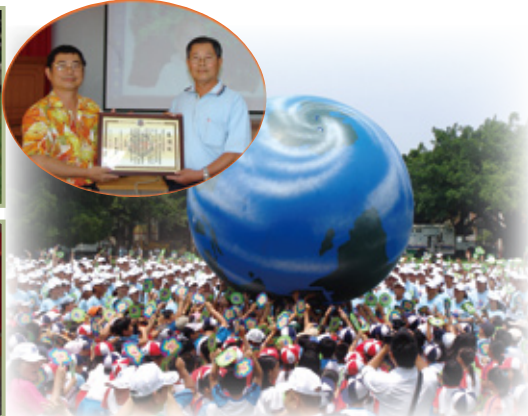
행사 당일 동수들은 백만인 서명 운동 행사도 진행했는데 학생과 귀빈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500인분의 비건 요리도 참가 인사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



[장화] 장화 센터는 4월 11일부터 적극적으로 온난화 저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수들은 전단을 배포하는 것 이외에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각급 정부 기관에 대해 포스터나 간판을 부착하고 ‘지구 구하기 백만인 서명 운동’ 행사도 진행했다. 동수들은 광고 내용이 가득 붙은 광고 차량을 몰고 현 곳곳을 누비며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법을 대중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타이난] 타이난 동수들은 기차역과 백화점에서 ‘2008 지구의 날 백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또한 황야보호 협회에서 시작한 해변 정화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수백 명의 환경 보호 자원 봉사자들이 서명에 응해 주며 지지를 나타냈다. 4월 21일에는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이 청공대학(成功大學)에서 개최한 ‘2008 진심으로 지구를 사랑하자’ 행사에 참여했다. 이 외에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타이난 시정부 기관에서 지구 온난화 홍보 활동을 벌였는데,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서명에 응해 온난화 저지 행렬에 함께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4월 23일과 26일, 동수들은 각자 타이난 현 쉼자(學甲) 진 텐런(天仁)직업학교와 옌수이(鹽水) 진 노인문화 레크레이션활동센터에서 ‘채식과 온난화 저지’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옌수이 진 행사에서는 교육적인 강연과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채식 요리도 대접했다. 행사에 참가한 약 2백 명의 지역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온난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했다. 옌수이노인복지진흥회 천치두안(陳啓端) 이사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환경 보호 의식을 가져온 국제협회 동수들의 노력에 감사했다. 🌸



[가오슝]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국제협회 가오슝 센터 회원들은 대만 남부의 국제적인 학술 기관인 ‘원자오(文掇)외국어대학’에 가오슝 시의원 황보린(黃柏霖) 씨를 초청했다. 그는 리원루이(李文瑞) 총장과 함께 ‘채식과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온난화 저지 선언'에 서명했다. 총장과 학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원자오외국어대학의 부서장 30여 명이 '지구의 날' 점심에 채식을 하며 학생들에게 술선수범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지구 온난화 저지를 위한 결심을 보이하고자 청원서에 서명도 했다. 총장은 서명을 하는 것 외에 '채식과 온난화 저지 선언' 청원서를 학교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서명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 외, 학교 측은 오후 수업 시간에 전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국제협회 부스에 가서 서명하고 지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또한 당일 정오 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와 에어컨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원자오외국어대학 교사와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로, 이날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



[화렌] 화렌 동수들은 4월 19일과 20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채식과 온난화 저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모든 이들이 진지하게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었다. 지역 기자들은 우리 활동을 취재하면서 동수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으며, 관련 자료들도 받아 갔다.



'지구의 날'에는 임업국·화렌 시정부·쉐텐(學田)초등학교·밍리(明里)초등학교가 이 운동을 지지해 화렌 센터가 제공한 비건 도시락을 감사히 받았다. 채식과 온난화 저지에 대한 개념이 이미 대중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린 것이 분명했다. ➡

[평후] 평후 동수들은 '지구의 날' 행사 첫째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베이천(北辰) 시장에 가서 '채식과 온난화 저지 선언' 서명 행사를 전개했다. 평후 왕간파(王乾發) 현장 부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걸어서 출근했으며, 친절하게 서명에도 참여해 주었다. 동수들은 그들에게 '온난화 저지' 수첩을 증정했으며, 현장에게



지방 정부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지구 온난화 문제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사인 사저 한 명은 우리 음식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차례 토론한 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식생활을 바꿨으며 홍보 자료를 배포할 때도 종종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다. 이 아이들은 ‘지구의 날’ 저녁에 와서 동수들의 채식 홍보 활동을 도와줬으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들의 모습은 지방 매체의 찬사를 받았다. 🌸



[지룽] 지룽 동수들은 지역 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채식과 온난화 저지’ 홍보 행사를 벌였으며, ‘SOS 기후변화’ 동영상 상영해 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이해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기쁘게 서명해 주었다. 심지어 7, 80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와서 지지를 나타내셨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포모사 온난화 저지 활동에 대한 종합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97.php>

전세계 원주민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방법을 논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보도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2일, ‘대만원주민문화산업발전협회(TICEDA)’와 타이베이 현이 공동 주최한 ‘2008년 전세계 원주민 문화회의’가 개최되었다. 13개 국가의 300명에 가까운 원주민들이 초청되었으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초청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국제협회 대표는 회의 중에 스승님의 신간 『고귀한 야생』과 그 속에 담긴 고귀한 이념을 소개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지구 온난화 특별 프로그램을 상영해 전세계인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지구를 구하길 희망했다. 이 밖에 동수들은 ‘기온을 내리고 탄소를 줄이는 중식·양식 음식’을 주제로 하여 내빈들에게 맛있는 순천연 유기농 채식 요리를 대접했다.

이번 회의 중 온난화 문제는 참가자들의 가장 큰 논의 의제였다. 2월 17일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기간에 열린 『고귀한 야생』 신간 발표회에서 스승님은 원주민 방송국 천원후(陳文虎) 기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주셨다. 천 기자는 당시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이 지구를 보호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세계인



우리 국제협회 대표가 원주민 TV 기자인 천원후 씨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다.

에게 환경을 사랑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회의 중에 다시 방송되었으며, 참가 인사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이번 행사 저녁 만찬 때 천원후 기자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면서 스승님의 신간 발표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소식을 보도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만원주민문화산업발전협회’ 이사장 야레이쓰(亞磊絲) 여사는 원주민 지역 사회와 현대인 모두 함께 지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했다. 쿵원지(孔文吉) 원주민 국회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산이나 해안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맨 먼저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 때문에 포모사 원주민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둘째 날에는 뤼슈렌(呂秀蓮) 포모사 부총통이 참석해 신께서 지구에 풍부한 생태 환경을 주셨으며, 우리는 마땅히 생태 환경을 보살피는 원주민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연설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서한으로 보낸 축사에서, 5월에 총통에 취임하면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마잉주 총통은 또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인 파우차리 박사가 최근 제안한 '육식 금지, 자전거 타기, 소비 줄이기'는 정말 올바르고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 우리 국제협회 회원은 300인분의 맛깔스러운 '기운을 내리고 탄소를 줄이는 지구 음식'이라는 채식 요리를 준비해 참가 인사들의 호평을 받았다.

4월 14일, 회의가 자유 토론 시간에 들어서면서 참가자들은 폭넓은 의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온난화 저지 팀이 주관한 '채식, 환경 보호, 지구 구하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30명에 가까운 귀빈들이 참여했다. 캐나다의 데릭 벅스터(Darrick Baxter) 씨는 일주일에 4일간 채식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를 중시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대중에게 가능한 한 채식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네 명의 예술인은 필리핀 정부가 농민들에게 바이오에너지 농작물 재배를 장려한 탓에 채소 생산량이 매우 적어짐으로써,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싼 쌀을 사 먹지 못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 쌀밥 식사는커녕 채소마저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귀국 후에 대중들에게 뒤뜰에 공기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축을 기르는 대신 각종 채소를 심어 먹도록 장려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채소 종자를 기부해 주길 희망하였다. 동수들은 이들에게 축복을 가득 보내는 한편 즉시 국제협회를 대신해 채소 종자를 제공해 큰 환영을 받았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 매일 한 끼, 매주 4일간 채식을 하고 이 4일을 동물 자유의 날로 삼아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 숨쉬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국제협회 대표도 스승님께서 제공하신 지구 온난화 대처 방법 중에서 채식이야말로 개인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을 방문한 13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해 마지않았으며,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수프림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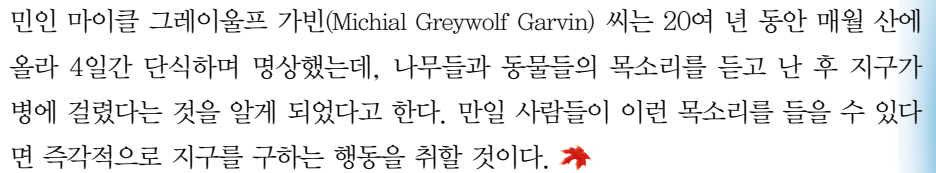
뤼슈렌 부총통이 세계 원주민 문화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한다.



회의가 끝난 뒤 각국 귀빈들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를 방문하다.



우리 협회에서 제공한 '기운을 내리고 탄소를 줄이는 지구 음식'이 뛰어난 맛으로 높은 평가를 받다.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7호 35



다 채로운 이벤트

우 리 함 께 지 구 를 구 합 시 다

긍정적인 매체에 감사하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사진 3

[포모사] 요즘 더욱더 많은 포모사의 매체들이 기꺼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을 보도하고 진선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회에 밝은 빛과 희망을 가져오고 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과 5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이들의 공헌을 표창하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중 『사방보(四方報)』 편집장인 장정(張正) 씨(사진 1)는 ‘수

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소식을 포모사에 거주하는 어울락인에게 전해 주었으며, 썬리(三立)방송국의 프로듀서이자 앵커인 천아린(陳雅琳) 여사(사진 2)는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그리고 화렌 동아케이블 방송국 사장 황자오이(黃照義) 씨(사진 3)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해 주었다. 이들 모두 감사장과 함께 지구 온난화에 관한 팸플릿과 스승님의 출판물도 선물받았다.

신의 축복 속에 더욱더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건설적이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표방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모든 존재들을 위해 빛나는 미래를 창조하길 기원한다. ➡



사진 1



사진 2

중 국



채식과 환경 보호를 홍보하여 대지의 어머니를 구하자

상하이 동수 (원문 중국어)

[상하이] 어머니날을 경축하고 ‘육식 추방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 동수들은 상하이 바이롄(百聯) 쇼핑센터와 함께 황금시대 5년(2008년) 5월 11일에 무료 채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20여 가지의 맛있는 채식 요리와 10여 가지의 채식 과자,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채식 생일 케이크를 제공하는 한편 대중들에게 채식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한 손님들에게 ‘대안적인 삶’이 새겨진 쇼핑백도 배포했다. 지구의 위기와 지구를 구하는 채식의 크나큰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들 대부분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채식하겠다고 말했다. ➡



만물의 신성한 어머니

찾아하는 스승님께

지연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품으로움쳐처럼,
당신의 성스러운 사랑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복드킵게 극복된 엄마 새의 기원과 날개처럼
당신의 현상의 아름다움은 온 우주를 빛냅니다.
소중한 아기를 애정으로 돌보는 아생동물처럼,
당신의 신성한 재비는 세상 곳곳 만 중생에게 미칩니다.

스승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행복한 생신과 어머니날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미국 뉴저지 제지들 올림

(원문 영어)

어머니날은 세계 사람들이 자애로운 어머니께 영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다. 이에 우리 또한 온 세상에 계신 어머니들의 길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린다. 이 사랑이 진정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날을 맞아 칭하이 무상사의 영원하고 자비로운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전세계 어머니날 특별 경축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JAR_EE605.php





LOVE GLOBE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와의 토론

칭하이 무상사/ 2008. 1. 20.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스태프와의 원격 회의 (원문 영어)

수행은 지구를 이롭게 한다

질문: 수행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스승님: 물론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미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 소식이 더욱더 많아지고, 동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는 게 보일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것뿐입니다. 전세계가 수행하지 않고 우리 단체나 몇몇 다른 단체만 수행하기 때문이지요.

수행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밀을 하나 말해 주지요. 만약 수행자들이 많지 않았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어쨌든 아직 마야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내면에 그걸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물질적인 삶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영적인 삶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 아예 없는 것보단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있는가

질문: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 지구에 행한 일들로 인한 기후변화 상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쳐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가 지구에 끼친 피해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스승님: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부와 세상 사람들이 빨리 행동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최초의 상태처럼 100퍼센트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주 빨리 움직인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빨리 행동한다면 지구는 좀더 보호받을 것이고, 그러면 일부 손상들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현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NO MORE KILLING



스승의
말씀하시기를

서 사람들이 더 빨리 행동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중년이거나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경우, 아주 오랫동안, 수억 년간 존재해 왔고 세상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나무를 새로 심는다 해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크고 오래될수록 산소를 생산해 내고 이산화탄소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더욱 큼니다. 정부들이 자연이나 빙하가 하는 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그렇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열을 반사하고 우주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발생하는 이유

질문: 스승님, 이런 온갖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스승님: 업장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업장이 쌓여서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옛날 스승들이 그 모든 가르침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간혹 일어납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틀란티스 같은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고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야 하는 등의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게 처음은 아닌 겁니다. 최근에는 어느 호수 밑에서 새로운 도시가 발견되기도 했지요. 그것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끔 이 세계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큰스승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스승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다. 각기 다른 스승들이 내려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채식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듣지는 않지요. 심지어는 스승의 말을 듣는 이들이나 스승을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업장이나 파괴력이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혹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선하고 자애롭고 자비로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높은 천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조차 현세 스승의 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악당’들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해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은 해탈합니다. 전적으로 그들 잘못만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육식하는 게 전적으로 그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입문한 사람들은 확실히 보호받습니다. 물론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어긴다면 그들 또한 인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나쁜 일을 하지 않은





LOVE GLOBE



스승의 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그저 대중을 따랐을 뿐인 무지한 이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스승님: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것입니다. 다들 지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것이 인간이 야기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합니다.

스승님: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요? 그럼 달리 누가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는 건가요? 외계인이 우리 차를 운전하고 외계인이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스승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세상에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스승님: 내가 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든 그것이 그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들에게 드리워진 무지의 장막이 진실을 망각하게 만든 것뿐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스승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잘못 인도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단 안쓰럽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채식을 하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라

질문: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나사 기후변화 광고를 보여 주었더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채식을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어쩌면 몇 년 뒤에 할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더 설득해야 할까요?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난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줄 모릅니다. 요 몇 년간 이토록 많은 일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채식을 하진 않습니다. 일부에겐 도움이 됐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설령 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사 전단을 붙인다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습관은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반항 심리까지 있



NO MORE KILLING



으니까요. 때로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여러분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반항 심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곳적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워요. 채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채식하라고 하면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떻게 채식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채식이 그다지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육식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채식 음식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중국인들이나 어울락(베트남)인들에게는 좀더 쉽지요. 두부 등의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거나 잡채 같은 걸 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육식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통째로 오븐에 넣을 줄만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채식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나는 독일에 있었을 때 매주 이웃 사람들에게 채식 요리를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채식주의가 되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내 요리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리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채식하게 되진 않았습니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식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인과나 운명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시 채식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스승님: 그건 그 사람이 강한 의지를 지녔고, 자신이 아는 좋은 것을 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변합니다. 약한 사람은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하지 못합니다! **신은 사람들에게 악(惡)에서 선(善)으로든, 선에서 악으로든, 뭐든 스스로 선택해서 바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부추기는 예고가 있지요!

우리가 이 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우리가 이 행성을 유지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는 우리 단체한테만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천국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발휘해 지금보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최상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지구 인구의 반이 채식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히 멋진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더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전역의 기후가 변하고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며 추운 지역은 더워지고 더운 지역은 추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혼돈 상태가 되고 장차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폭풍우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등 지구가 정말 끝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고통스러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고통 받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같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단을 보내십시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책





LOVE GLOBE



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질문: 나사 기후 보고서 자료는 극지방의 만년설이 2012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야 달력의 끝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스승님: 아마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 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변하고 싶어하는가, 변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어디든 가서 노력해 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전단, 강연은 수백 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육식을 해로운 물질로 금하자

질문: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승님: 그들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지구 행성의 식생활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시 신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채택하고, 그들 스스로 채식인이나 비건이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들의 큰 힘을 이용해 본보기를 보여 지구를 위한 새로운 식생활, 채식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선 채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금지한 것처럼 그들은 육식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가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모든 해악을 예로 들면 됩니다. 흡연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흡연과 마약을 금지시킨 것처럼 육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해로운 마약인 셈입니다.

질문: 우주의 다른 문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스승님: 예,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행성이면 어디서나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면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의 발달이 영성을 능가해 균형이 깨지고 행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NO MORE KILLING



질문: 사랑하는 스승님, 이번 기회를 빌려 환경 문제에 관한 이번 회의를 너그려이 허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모든 노고와 저희에게 보내 주신 격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스승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중 박수) 천국과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청중: 사랑합니다! (대중 박수) ✿

이 멋진 회의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체 방송분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WOW522-523.php>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기한 감응

귀신을 해탈시키는 방법

매튜 서피스 사경/ 영국 서리 (원문 영어)

2007년 나는 아일랜드로 이사해 몇몇 사형사저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사랑스런 집에서는 유서 깊은 킨살레(Kinsale) 마을의 만(灣)이 멀리 내려다보였다. 이 지역은 오래된 건물과 아름다운 해안 전경이 많아 아주 고색창연한 느낌을 주었으며, 관광업이 번창했다. 물론 다정한 아일랜드인도 많았다.

우리가 머물던 집은 다 쓰러져 가던 건물을 새로 수리한 것이었다. 한번은 한 사저가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을 때 귀신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고 가볍게 나에게 말했다. 당시 그녀는 사형들 중 한 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줄 알았지만 그 사형은 절대 자신은 아니었다고 펄쩍 뛰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밤에 2층 거실에서 명상을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그저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본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때로 집에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명상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나의 호기심이 해결되었다. 내가 아래층에 있는 내 침실에 서 있을 때 귀신이 방문을 통과해 내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나쁜 귀신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그 희색빛 형상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자유'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즉시 귀신에게 스승님께 기도하라고 알려 주고선 벽에 있는 스승님의 사진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흐릿한 형체가 사진을 향해 날아가더니 위로 곧장 올라가 버렸다.

나는 이런 경험에 신기해하면서 부정적인 힘의 손아귀에서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스승님의 끝없는 노고에 감사드렸다.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모두 어디에 있었을까?

다시 한 번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금붕어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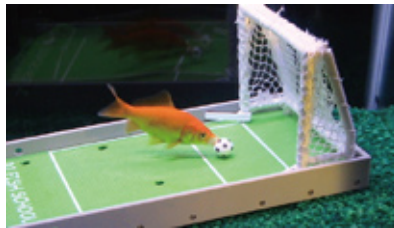
샌 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메트(Comet)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금붕어라 할 수 있다. 2년간의 훈련 끝에 그는 시키는 대로 동작을 수행하는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수중 천재는 림보 댄스도 추고, 축구도 하고, 기둥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며, 터널도 통과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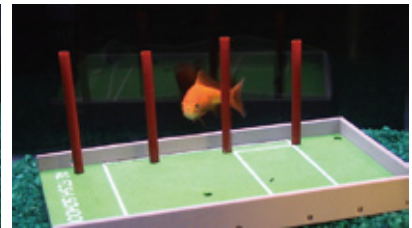
터널 통과



림보 댄스



축구



기둥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기

출처 : www.r2fishschool.com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천사들

포모사 아선 사형 (원문 중국어)

화재에서 보호자를 구한 개

5년 전, 신주 중화대학(中華大學) 부교수인 쉬원룽(許文龍) 씨와 그의 아내 왕제(王婕) 씨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 개는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이름을 ‘꼬마 바보’라고 지었다. 놀랍게도 ‘꼬마 바보’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똑똑하고 인간 보호자의 생명을 심각한 화재에서 구하기까지 했다.

2년 전 어느 날 저녁, 왕제가 물을 끓이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자리에 누웠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물이 다



끓고 좋아들자 불이 났다. ‘꼬마 바보’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곤 주인을 깨우려고 발로 긁어댔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날 줄을 몰랐다. 마침내 그는 침대로 뛰어올라 그녀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계속 침실 문을 긁었다. 왕제는 문을 열어 보고선 거실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재빨리 대피했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쉬원롱 부부는 생명을 구해 준 ‘꼬마 바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유기견 두 마리를 더 입양했다. 그들은 또한 대중들에게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일단 기르기로 했으면 개를 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보살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

투견꾼에서 개 보호자로

한 홍다오(韓宏道) 씨는 전에 불법 투견장을 운영했지만, 유기견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애완견 식당과 동물 구조 센터를 시작해 유기견들을 돕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어느 날 저녁, 교통사고가 난 한 씨의 차가 길 옆으로 미끄러져 경사지 4미터 밑으로 떨어졌다. 그가 친구와 함께 차에서 기어나와 보니 완전히 황무지였고 방향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보였다. 그 개는 짖지도 않고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개를 따라서 30분 정도 걸은 끝에 결국 인가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개는 ‘아고우월드 동물보호협회’가 한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유기견 ‘계란 노른자’였다. 동물보호협회의 책임자 천장안(陳長安) 씨에 따르면 한 씨의 사고가 일어난 날 저녁, ‘계란 노른자’가 아고우월드로 돌아오지 않아서 자원 봉사자와 함께 찾으려고 나섰다가 한 씨와 그의 친구를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한홍다오 씨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준 ‘계란 노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아고우월드 측에 동물병원으로 사용할 집 세 채를 기부하는 한편 자신도 타이베이에 애완견 식당과 동물 구조 센터를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씨는 “개들은 이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며 유기견들에게 ‘다시는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주기로 맹세했다. 🐾



한홍다오 씨와 그의 애견들.



생명을 구한 영리한 개 ‘계란 노른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채식 천국을 만들자

신시아 사저/ 호주 퍼스 (원문 중국어)

우리는 단 하나의 나라가 아닌 전세계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관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부르면 모두 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고, 남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남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모욕을 칭찬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일해야 합니다. 뭐든지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이 채식이 뭔지도 모르는 낯선 이국에서 현지 음식 문화와는 다른 채식 식당을 열었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사저가 지낸 지난 1년간의 모습이다.



지난해 세계 각지에서 동수들이 열정적으로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의 채식 지구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와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주해 온 사저 한 명이 퍼스(Perth) 시에서 채식 식당을 개업했다. 개업 과정 중, 기자재와 식자재 구입, 높은 임대료, 인력 부족 등등과 같은 갖가지 장애에 부딪혔지만, 스승님께서 항상 일깨워 주셨듯이 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이루지 못할 일은 없게 마련이다. 우리 식당에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었지만, 사랑과 창의력을 발휘해 만든 음식은 많은 고객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채식에 대한 인상을 지우고 채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심지어 수십 년의 요리 경험을 가진 몇몇 주방장들조차 우리 음식을 한 번 맛보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식당의 명성은 점차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운전도 불사하며 한 끼 채식 식사를 하러 왔다.

우리는 식당 안에 채식 요리책과 스승님의 출판물을 제공하는 독서 공간도 마련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방편법을 배우거나 입문해서 관음 가족에 들어오는 이들도 생겼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신의 기적을 끊임없이 목격했다. 예를 들어 한번은 포모사에서 우리 식당에 보낸 식품이 도착했는데, 그 소포 속에 생각지도 않은 어울락어판 뉴스잡지가 몇 권 들어 있었다. 그때 마침 어울락어로 된 스승님의 출판물을 읽기를 몹시 갈망하던 어울락인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녀는 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 잡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방편법을 수행하게 되었다.

올해 4월,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식당은 대중들에게 무료로 채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거의 1개월에 이르는 동안, 대중들의 열



렬한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손님이 몇 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매우 감동하고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관한 메시지가 매우 빠르게 퍼져 나갔다. 어떤 고객들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나눠 줄 유익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고, 대학이나 상점 안에서 상영할 지구 온난화와 채식에 관한 DVD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님들 대부분이 식사를 마친 후 아낌없이 돈을 기부해 우리 활동을 지원해 준 것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자원 봉사를 신청했다. 그중 일본인 여성과 70세가 넘는 그녀의 시어머니는 우리가 식당 일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알리자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주방장 경험이 있는 비건 손님 한 명은 우리가 채식 요리반을 개설하도록 협조해 주었고, 다른 손님들은 쌀도 기부해 주었다. 그리고 점심 식당을 운영하는 손님 한 명은 채소와 과일을 제공해 주었고, 열성적인 일부 손님들은 자기 집에서 키운 채소를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모두들 갖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구하는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 일을 도우면서 자기가 태어난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이 일이 매우 뿌듯하고 즐거운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호주와 포모사에서 대형 채식 식당을 몇 곳 운영하는 사장은 원래 무료로 채식을 제공하는 계획을 포기시키려고 설득하려 했지만 우리의 순수한 목적과 굳

은 신념을 알고 난 후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채식 재료를 제공해 주는 한편 직원들에게 우리 식당 일을 도와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 많은 매체들도 우리 식당과 지구 온난화에 관한 소식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한 방송국은 '무료로 채식하고 지구를 구하자'라는 구호를 이용해 우리 식당을 무료로 홍보해 주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일하면 우주 곳곳의 불보살이 돕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식당 부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식사하러 오는데, 모두들 한 가족처럼 온정이 넘친다. 우리 식당은 스승님께서 전에 언급하셨던 '공공 주방'과 같다. (주) 돈을 내든 안 내든 누구나 우리 식당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들 대부분은 함께 나누는 마음을 발휘해 적당량의 음식만 가져가 빨리 식사를 마친 후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많은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 몇 차례 식사를 한 후, 스승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생각과 행동이 더욱 고상하고 자비롭게 변했다. 어느 단골손님 한 사람은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여기는 퍼스 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기쁘고도 놀라운 성과를 얻게 해주신 스승님의 인도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

스승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다. "우주에서 좀더 진보한 일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공공 주방 혹은 공공 상점과 같은 곳이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노동력이나 제품, 수예품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공헌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뉴스잡지 93호에 실린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우주 내 여러 세계에서 일하는 상이한 방식'에서 발췌. 1998년 5월 9일 한국 영동 센터, 원문 영어, DVD No. 620)



지구를 구하자

전 지구적인

'소리 없는 쓰나미'를 막아내자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난 2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83% 상승했다. 특히 쌀과 밀가루 같은 주요 산물은 작년 한 해에만 각각 141%와 130% 폭등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 전역의 많은 국가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식량 가격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비싼 식량 가격 때문에 현재 33개국이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이미 향의가 폭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중대한 첫 번째 신호탄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재난이 되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홍수나 가뭄 같은 극단적인 날씨 패턴으로 초래되는 식량 부족은 이미 분명한 기후변화의 폐해이다. 식량 위기로 인한 기아와 그에 병행해 나타나는 사회 불안은 사실상 지구 온난화 재난의 첫 번째 징조인 것이다. 유엔은 이러한 현상을 '소리 없는 쓰나미'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빈곤과 식량 부족이 결합되면 광범위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나라인데도, '완충지대' 같은 것이 없기에 실제로는 그들 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

구 온난화 현상이 예견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조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후변화 패턴의 파급력이 현재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온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연도 중 열의 아홉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발생했다. 2002년에는 높은 기온과 가뭄으로 인도와 미국의 농산물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2003년 유럽은 봄·여름 강우량이 매우 낮은 반면 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해 영국부터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지역 일대가 그 영향을 받았다. 다른 주요 곡물 생산국들도 극심하게 널뛰는 날씨로 인해 생산량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사이언스(Science)』지에 게재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남아프리카는 현재 주요 농산물인 옥수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있고, 호주 남부 지역은 10년째 접어드는 가뭄으로 이전에 2천만 명분의 곡물을 가공 처리하던 한 정미소가 폐업했다고 한다.

'UN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2001년 『3차 평가 보고서』는,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곡물 생산량이 물 부족과 신중·변종 병충해로 인해 감소하고 있어서 이들 극빈국들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



지구를 구하자

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빗물로 경작되는 많은 농작물들이 내열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는 매우 작은 기후변화에도 산출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 세계 식량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기후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다. 바로 육식을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유엔이 2006년에 제출한 『가축의 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 보고서에 따르면, 삼림 벌채나 연료 집약 농업처럼 육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가 인류의 전체 배출량 중 18%를 넘게 차지한다고 한다. 축산업과 관련된 배출 가스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35~40%(주로 동물들의 트림과 배설물에 기인), 전체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64%(주로 퇴비 사용에 기인)를 차지한다. 짧게 말하자면, 축산업이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유엔 보고서는 또한 육류 산업이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토질 침식, 대기 오염, 물 부족,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 등을 논할 때 축산업이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뿐 아니라 광대한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한다. 축산업은 전세계 모든 농지의 70%, 지구 표면 토지의 30%를 차지한다. 게다가 그 많은 농작물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재배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곡물의 40%가 사람이 아닌 가축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그 양의 절반만이라도 인류에게 제공한다면 세계 기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이런 일들은 수많은 이들의 식량을 빼앗고, 세계적인 기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육식을 그만둔다 해도 큰 의미가 있다. 동물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식을 할 경우 1인당 1/6 에이커의 농지만 있으면 되지만 육식을 할 경우에는 1인당 3에이커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다. 온실가스의 측면에서 보면, 1인당 육류 소비를 20%만 줄여도 도요타 캠리(Camry) 자동차를 타다 프리우스(Prius)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는 효과를 낳으며, 1년 내내 100% 채식을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5톤 줄게 된다.

모든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멀리 떨어진 나라의 국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식량 위기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

참조:

http://www.americanprogress.org/issues/2008/05/food_crisis.html

<http://world-wire.com/news/0804290001.html>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7220807.stm>

2007년 가뭄으로 말라 버린 호주 리베리나(Riverina) 지역의 방목장.

영문판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버추얼 스티브(Virtual Steve) 사진 제공.

(http://en.wikipedia.org/wiki/Drought_in_Australia)

친환경 에너지 파력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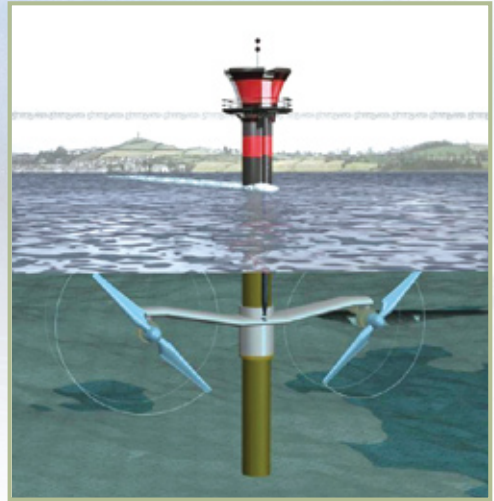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 온난화의 파급을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 기후변화는 모든 이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 발전은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다. 미국에서만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가 이들 발전소에서 배출될 만큼 석탄 화력 발전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수동력 (Tidal-kinetic Power)’으로서, 몇몇 국가에서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회사인 AW에너지(AW-Energy)사는 최근 해저 파도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웨이브롤러(WaveRoller)라는 파력 장치를 개발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전문 다이버인 라우노 코이부사리(Rauno Koivusaari)는 1993년 발트 해에 있는 한 난파선에 잠수했을 때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난파선을 조사하다가 수중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배의 문짝에 부딪힐 뻔했는데, 이 현상을 보고서, 해저 파도의 힘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의 호기심이 AW에너지 창립으로 이어졌다.

AW에너지는 ‘해저 파도 현상’, 즉 해수면 아래의 물 흐름을 이용해 발전을 시도했다. 해저에 장착한 웨이브롤러 발전기 판이 파도에 의해 앞뒤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피스톤 펌프가 이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육지에 있는 발전기에 의해 전기로 전환된다. 회사의 말에 따르면, 웨이브롤러는 멀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폭풍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대양 파도를 이용한 다른 발전 기술과도 다르다고 한다. 게다가 웨이브롤러 장치 설비에 사용된 부품들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다. 예컨대, 이 혁신적인 파력 발전 시스템의 유압 부품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채소에서 추출된 기름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간편하고 설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회사는 포르투갈 페니체(Peniche) 앞바다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이내에 포르투갈 해역에 웨이브롤러로 가동되는 10메가와트(MW)짜리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다. AW에너지 CEO 투오모 히살로(Tuomo Hyysalo) 씨는 회사의 이런 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지구 전체 전기 소요량의 10%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웨이브롤러가 활용하는 근해 해저 파도는 세계 각지의 해안선 전역에 걸쳐 방대



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원입니다.”

영국은 이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잠재성을 발견한 또 다른 나라이다. 영국 회사 ‘마린 커런트 터빈스사(Marine Current Turbines Limited, MCT)’는 북부 아일랜드 외해의 스트랭포드 만(Strangford Lough)에 시젠(Seagen)이라는 독자적인 1.2메가와트의 조력 발전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해저에 고정된 수직축에 달린 20미터 폭의 터빈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조수의 속도에 의해 터빈이 1분에 열 번에서 스무 번 회전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



르면 이런 회전은 해양 생물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여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성공할 경우 이 회사는 영국 앞바다 곳곳에 조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영국 전체 에너지 소요량의 15~20%를 이 청정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영국은 현재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한 적절한 절차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조수 운동 에너지 사업은 대서양 건너 미국 뉴욕에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 조수 에너지(Roosevelt Island Tidal Energy, RITE)’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하루에 1천 킬로와트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RITE는 세계 최초의 자연 조수동력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완성이 되면 이스트 강(East River) 바닥에 200개의 터빈을 설치해 뉴욕 시민들을 위한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의 목표는 2013년까지 최소한 뉴욕 시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조수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므로 전기를 생산할 대안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전력 회사에 편지를 보내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 대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좀더 친환경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전세계 모든 정부와 나라들이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 변화를 일으키자. 🌹

참조:

<http://www.dec.ny.gov/environment/dec/35380.html>

http://www.devinetarbell.com/alternative_energy/ren_profiles/tidal_1.htm

<http://www.greenupandgo.com/renewable-energy/waverollers-the-future-of-power-generation/>

http://technology.newscientist.com/article.ns?id=dn12519&feedId=tech_rss20

<http://www.seageneration.co.uk/project-background.asp>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세계 곳곳에서 인정 넘치는 행동과 신의 성스러운 사랑의 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과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세상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더해 준다. 이러한 덕행을 표창해 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비롯한 일련의 상을 제정하였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정부·단체, 자비롭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모든 존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훌륭한 이상에 대한 찬탄과 감사를 나타낸다. 하트 평점은 인류에게 모든 존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도록 상기시키는 신의 사랑을 상징한다.



가나에 대한 노르웨이의 무조건적인 지원

케냐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2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노르웨이 대사 엘리자베스 야콥센(Elizabeth Jacobsen) 여사를 만나 그녀와 노르웨이 정부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이 명성 높은 상은 지난해 케냐에서 소요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게 되었을 때 노르웨이가 인도적 도움을 베푼 그 헌신적인 봉사를 표창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콥센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르웨이는 케냐에서 지난

연말과 2008년 초 선거 후에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케냐 내에서 추방당해 난민 캠프에 머물게 된 많은 사람들, 특히 리프트밸리(Rift Valley)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소요 기간 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케냐 국민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격려를 가져다주었다. 야콥센 씨는 기쁨과 놀라움 속에 상과 스승님의 책 『고귀한 야생』,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스승님의 DVD를 감사히 받았다. 이 세상의 불우한 곳에 사랑과 자비, 관대함의 귀감을 보여 준 노르웨이에 감사한다. ➡





빛나는 세계 자비상



북극곰의 수호자-파라다이스 유소년 스카우트

미국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동료 학생들과 많은 부모님이 보는 가운데 아홉 살인 대니얼 릭카즈(Daniel Rickards)가 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 초등학교(Paradise Elementary School)에서 개최된 특별한 시상식에서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받았다. 대니얼은 하트 모양의 크리스탈 상패와 함께 스승님의 음악 CD·DVD·이야기책,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인 『고귀한 야생』을 비롯해 삽화가 담긴 스승님의 모든 최신 서적으로 가득한 선물 꾸러미와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신 미화 3,000달러의 수표를 받았다.

대니얼은 파라다이스 시 260단의 유소년 스카우트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스카우트단에서 세계보존배지를 타기 위해 지난 2월 15일 금요일, 야외수영장에서 개최된 수영대회에서 2시간 동안 189번을 왕복 수영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의 북극곰 돕기 활동을 위해 미화 889달러를 모금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북극곰 개체 수가 위험한 지경이며 게다가 인간이 그들의 영토를 어지럽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에서 이 학교 미셸 존스(Michelle Jones) 교장은 모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의 감사 편지 전체 내용을 낭독하며 대니얼의 자비로운 행동을 표창하고 다른 이들도 그의 본모기를 따르도록 격려했다. 대니얼은 겸손하게 상을 받고선 감사한 마음으로 WWF에

미화 3천 달러를 기부해 북극곰 41마리를 위한



대니얼 릭카즈와 그의 가족이 수상의 기쁨과 격려를 나누다.





빛나는 세계 자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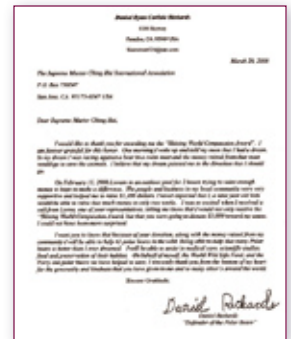


대니얼 릭카즈의 자비로운 행동과 시상식을 다룬 지역 신문『파라다이스 포스트(Paradise Post)』.

의료 지원과 과학 연구, 식량 공급, 북극곰 서식지 보존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협회 회원들은 대니얼이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세계야생동물기금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다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자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결정은 온 가족이 동의하고 지지해 주었다고 한다.

아홉 살 소년의 감동적인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북극곰이 처한 곤경을 인식시켰으며, 어린 나이지만 한 사람의 노력이 지역 사



스승님으로부터 ‘빛나는 세계 자비상’과 미화 3천 달러의 부상을 받은 대니얼 릭카즈의 감사 편지.

회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의 사심없는 봉사의 마음은 소중한 지구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이 시상식과 인터뷰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603.php>



엠마 하스웰-밝은 동물 농장 보호소 창설자

레이 덕슨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태즈메이니아 협회 회원들은 최근 ‘밝은 동물 농장 보호소(Brightside Animal Farm Sanctuary)’의 엠마 하스웰(Emma Haswell)에게 스승님의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상은 농장 보호소를 설립해 학대당한 동물이나 도살당할 위기에 있던 동물들을 구조해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데 헌신해 온 엠마의 공로를 표창한 것이자, ‘태즈메이니아 동물학대 반대(Against Animal Cruelty Tasmania, AACT)’ 협회의 열성 회원으로서 열심히 이러한 동물들의 소리를 대변해 온 엠마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다.





빛나는 세계 자비상

협회 회원들은 호바트(Hobart)의 유명한 살라망카(Salamanca) 시장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엠마를 처음 만났다. 엠마는 그날 아침 구조를 요청받은 상처 입은 아기 양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잔디밭에 무리 지어 다니는 순한 동물들이 귀엽고 장난스러운 천성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파라마운트사의 영화 '살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에서 주연을 맡은 윌버(Wilbur)라는 잘생긴 돼지도 있었는데, 그는 현재 온 종게도 엠마의 '밝은 보호소'에 살면서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끝없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동물들이 서로 즐겁게 교류하는 모습과 그들의 넘치는 애정과 명랑함을 보면서 이 똑똑한 신의 창조물이 이 동물의 천국에 있으면서 엠마와 그녀의 딸 엘리자(Eliza)로부터 세심하고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안심하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엠마는 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었다. 공장식 닭장에서 구조된 프린세스(Princess)라는 암탉은 열심히 린넨 침대와 세탁물 사이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았으며, 매우 특별한 돼지 퍼지(Fudge)는 그녀에게 동물 복지 활동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돼지랑 함께 살기 전에는 돼지가 얼마나 멋진 동물인지 몰랐어요. 돼지랑 살면서 농장 동물과 농장 동물의 고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돼지의 두뇌가 인간과 매우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돼지는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다양한 소리로써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익혀 그들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보호소의 동물 120마리를 먹이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집약식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 학대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동물의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특성과 우리 동물 친구들이 우리의 보살핌과 사랑,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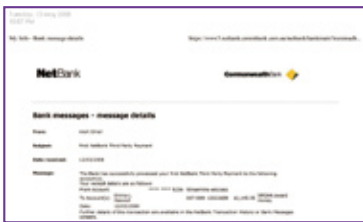
빛나는 세계 자비상

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다. 엠마는 이런 일들을 아주 적은 경비와 거의 혼자 힘으로 해낸다. 최근에 이론 놀라운 성과는 굶주린 채 방치된 순혈종의 경주마 30마리를 구조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일들은 오로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해 온 그녀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스승님께서 '빛나는 자비상'과 미화 2천 달러를 엠마에게 수여하신다는 소식을 알리는 일은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있어 정말 특



별한 경험이었다.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8일에 개최된 시상식에서 휴온밸리셔(Huon Valley Shire)의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 시장은 엠마에게 수상을 축하하고 이 지역에서 행한 선행에 감사했다. 시상식에는 엠마의 친구와 AACT 회원들이 참석했다. 엠마는 아름다운 상패와 스승님의 책과 DVD 선물에 깊이 감사했으며, 엠마의 자비로운 행위를 듣고 감동해 900호주 달러를 기부해 준 우리 멜버른 협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했다. 🌸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2천 달러에 대한 엠마 하스웰의 영수증.



당 갓 박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신의'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당 갓(Dang Cat) 박사는 1936년 북부 어울락 남딘(Nam Dinh) 성의 하이하우(Hai Hau)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약을 잘 다루었다. 그는 군대에 들어간 후에 기본적인 의료 훈련을 받았고, 겨울에 무수히 많은 인명을 구했다. 1966년 그는 '육군의학원'에 파견되었고 이후 10년간 손라(Son La) 무장경찰부대 의료 팀 대장으로 복무한 후 국경육군학교 군의처의 처장이 되었다.

당 갓 박사는 1989년에 중령으로 제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한가로운 퇴직 생활을 즐기는 대신 지난 19년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성인의 사랑으로 충만해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의학 기술로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남들을 건강하고 행복하





빛나는 세계 자비상

게 만들면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이지요.”

당 박사는 몇 년 동안 도로 사정과 날씨가 어떻든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하노이 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의 소박한 작은 집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소’가 되었고 ‘신의(神醫)’라는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뿐 아니라 멀리 해외에까지 퍼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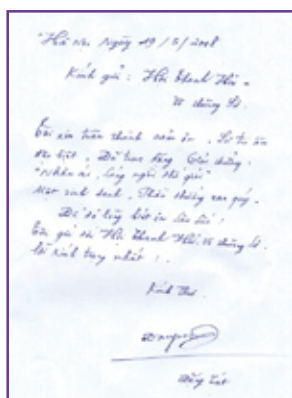
당 짖 박사는 매일 평균 15명에서 20명의 환자들을 돌보지만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혀 받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의 연금으로 의약품과 과일, 설탕, 우유를 사서 헐벗은 사람들을 돕기까지 한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6, 7년간 이 일을 하느라 바빴을 때 어디선가로부터 마음을 평온히 가지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보수를 주지 않아도 신이 보상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이 예언은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8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우리 협회 회원들이 수도 하노이에 있는 작고 아늑한 그의 집을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하여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스승님의 친필 서한과 미화 천 달러, 그리고 스승님의 출판물도 같이 전달되었다. 깊이 감동한 당 짖 박사는 존경을 담아 칭하이 무상사께서 건강을 유지



하여 자선 활동을 통해 전세계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주시길 기원했다. 그는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러워하면서 더욱 더 헌신적으로 인류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협회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번창하여 보다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해 주었다.

사랑과 자비심으로 인술을 베푸는 당 짖 박사의 모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인류에게 더욱 봉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천 달러에 대한 당 짖 박사의 감사 편지.



이 시상식과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609.php>



모스코바 뉴스그룹 (원문 영어)

트소바 여사의 특별한 자비심과 사랑은 아름다운 마음씨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58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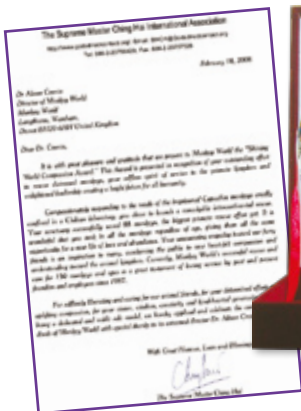
빛나는 세계 자비상

원숭이 구조자 ♥♥♥♥♥♥♥♥♥♥♥♥♥♥♥♥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4월 24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잉글랜드 남서부의 아름다운 도싯(Dorset)에 가서 '원숭이 세상(Monkey World)' 원장인 앨리스 크로닌(Alison Cronin) 박사에게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수여했다.

앨리스 크로닌은 고된 활동과 강한 정신력을 통해 칠레의 한 실험실에서 작은 우리에 갇혀 있던 흰목꼬리감기원숭이 88마리를 구출해 잉글랜드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원숭이 중에는 20년간 갇혀 있었던 원숭이도 있었다. 앨리스는 스승님이 보내신 상과 사랑이 담긴 미화 5천 달러의 기부금을 받고서 "이 돈은 전부 다 원숭이와 유인원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표창에 대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재 어울락에 생긴 새로운 구호 센터와 도싯 구호 센터로 스승님을 초대하고 싶어했다. 또한 그녀는 『고귀한 야생』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비롯한 선물들도 받고 기뻐했다.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데일리 에코(Daily Echo)』 신문은 이 시상식에 관해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 상이 선행에 대해 주어진 상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선행이 필요

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고귀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멋진 기회였다. 🌸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5천 달러에 대한 '원숭이 세상'의 영수증.

『데일리 에코』지에도 실린 이 시상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bournemouthecho.co.uk/news/latestnews/display.var.2224399.0.monkey_award.php



빛나는 세계 영웅상

제임스 헨슨 박사: ♥♥♥♥♥♥♥♥♥♥

기후변화 과학의 용기 있는 지도자

시상 팀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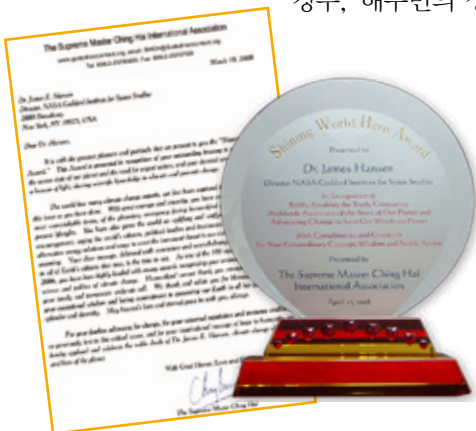


나사 고다드 우주 연구소(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소속의 제임스 헨슨(James Hansen) 박사는 세계 선도적인 기후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서, 일찍이 1988년에 컴퓨터 모델과 온도 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야기한 온실효과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곧 닥칠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과학자와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

헨슨 박사는 수년에 걸쳐 사명감을 갖고 일반 대중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중들에게 지구 온난화와, 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계의 일치된 의견을 설명해 왔다. 경험이 풍부한 많은 기후 과학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헨슨 박사 또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면서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10년간의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경우,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가뭄과 홍수 발생 빈번도가 증가하며, 급속도로 변하는 기후대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생존 압박이 커지는 등 재난 효과가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헨슨 박사의 말 속에는, 우리가 ‘다른 행성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헨슨 박사는 끊임없이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장려하면서 “연구 결과와 그것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대중에게 솔직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가 우선 순위를 이해하고 재평가하도록 돕기 위해 그는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그중에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위기의 급박성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습





빛나는 세계 영웅상

니다. 정말로 몇 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 뛰어난 미국 과학자이자 지도자는 1977년 고다드 특별 공로상(Goddard Special Achievement Award)을 위시하여 그의 업적을 인정하는 표창을 20여 차례 수상했다. 2008년 2월 16일에는 미국 과학 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가 과학의 자유 및 책임의 발전을 도운 그의 모범적인 활동을 표창했다. 최근 헨슨 박사는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그의 많은 공헌과 용감한 업적을 인정받아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담하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 지구의 상황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을 일으키고, 경이로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변화를 주장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되었다. 헨슨 박사는 바쁜 일정으로 직접 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감사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특별한 표창임이 틀림없으며,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용기 있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 제임스 헨슨 박사에게 축하를 보내며, 과학자·정부·대중의 결집된 노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 지구가 더욱 건설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제임스 헨슨 박사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특별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590.php>

용감한 청년 '소방관'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어느 토요일 새벽, 17세의 라타비사 벨(Latavisa Bell)은 도와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선 연기가 가득한 이웃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라타비사는 도난 방지 빔장으로 잠겨 있던 문을 삽으로 몇 번 열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자 마침내는 망치를 이용해서 간신히 문을 열었다. 불타는 집안에 있던 엄마와 두 딸은 이 청년의 용감한 행동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엄마와 소녀들을 앰블런스에 태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그들을 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을 거예요. 제겐 두 손과 망치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신이 도우신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Jacksonville)의 라타비사가 말했다.



빛나는 세계 영웅상

이 청년의 용기와 고귀한 자비심에 감동받은 스승님은 그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하셨다. 잭슨빌 WJXT 텔레비전 채널 4의 도움으로, 플로리다 동수들은 라타비사의 소재를 알아내어 그에게 멋진 소식을 전했다. 시상식은 2008년 4월 13일 잭슨빌 클렌젤 T. 브라운 커뮤니티 센터(Clenzel T. Brown Community Center)에서 벨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졌다. 열렬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라타비사는 영웅 티셔츠와 스승님의 출판물 등 여러 가지 선물과 함께 아름다운 크리스탈 상패를 받았다.

라타비사는 인터뷰에서, 이웃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두렵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막힘없이 말을 잘했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래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WJXT 텔레비전의 기자도 이날 시상식을 취재하러 왔으며, 그날 방송되었다. 라타비사의 놀라운 '빛나는 세계 영웅상' 수상 소식은 매우 감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고귀하고 자비로운 행위는 언제나 큰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



이 시상식과 인터뷰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79.php>



용감한 젊은 경관을 표창하다

캐나다 오타와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7년 11월 28일 이른 아침, 캐나다 오사와(Oshawa)에서 퇴근하고 체육관으로 가던 한 경찰이 한 숙소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22세의 경찰관 브래들리 브라운(Bradley Browne)은 즉시 911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세계 처서 거주자들을 깨운 그의 신속하고 용감한 행동 덕분에 거주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한 브라운 씨는 진정한 영웅심과 용감한 마음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젊은 경찰관은 자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겸손해하면서 지역 기자에게 이렇게 말



빛나는 세계 영웅상

했다. “지나가다가 화재를 보게 되면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의 행동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브라운 경찰관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하고 선물과 사탕, 맞춤형 영웅 재킷도 함께 전달했다. 그의 요구에 따라 이 물품들은 캐나다 더햄(Durham)에 있는 소속 경찰서로 배송되었다. 브라운 경찰관은 이를 받은 뒤 협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우선 귀하의 친절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상패는 저희 경감님의 요청에 따라 제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제 담당과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무상사께 안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신께서 자비와 겸손, 용감한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를 빛나는 모범을 보여 준 브래들리 브라운 경관을 축복하시길 기원한다! ✨



이 시상식과 인터뷰에 관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623.php>



스승님의 농담

적당한 의학 용어

칭하이 무상사/ 2007. 8. 23. 프랑스 파리 선삼 (원문 영어)

어떤 남자가 진료소에 들어와 의사에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손톱만큼도 부인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의사는 그의 전신을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이어서 환자가 물었지요. “의사 선생님,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의사는 말했어요. “예, 정말 간단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겁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의학 용어를 좀 알려주셔야겠는데요.” ✨





빛나는 세계 영웅상



충성스런 개, 앤젤을 기리며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는 보호자인 베티 윌헴(Betty Wilhem)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하고 헌신적인 개를 표창하기 위해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윌헴 여사가 죽은 강아지를 대신해 받았다.

검은 목걸이를 단 이 충성스런 강아지는 지난해 2월, 어느 추운 날 아침 윌헴 부인의 현관에 나타났다. 베티는 이 개가 보호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 곳곳에 전단을 붙였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새로운 강아지가 베티의 다른 네 마리 강아지, 세 마리 고양이와 함께 잘 어울려 지내서 베티는 그녀를 키우기로 하고 ‘이름 없는 강아지’로 이름을 지었다.

2007년 9월 21일 저녁, 베티의 ‘이름 없는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어 깨어난 베티는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기로 가득 찬 복도를 급히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애완동물들이 생각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애완동물을 구하려 되돌아갈 수 없었다. 베티는 집 밖에서 유리창을 깨서 애완동물을 탈출시키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맹렬해서 개 세 마리와 고양이 모두를 잃게 되었다. ‘이름 없는 강아지’도 그중 하나였다. 베티는 눈물을 흘리며 뒤뜰에 강아지를 묻어 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그 개에게 ‘앤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2008년 4월 13일, 우리 협회 회원들은 오하이오 로레인(Lorain)에 있는 새로 지은 윌헴 부인 집을 방문해 상과 선물을 전달했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영웅견을 표창하는 ‘영웅상’을 받고서 크게 감동했으며 상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했다.

베티는 선물로 받은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을 본 뒤 모든 동물이 고귀한 존재이며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에 그녀는 지역의 한 수의사와 함께 유기 동물을 모아 입양시키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에게 용기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 준 영웅견 ‘앤젤’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길 기원한다. 🌸

이 시상식과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607.php>





빛나는 세계 영웅상

영웅 고양이의 ♥♥♥♥♥♥♥♥♥♥ 사랑 어린 행동을 표창하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3월 26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영국 대표들은 잉글랜드 남부의 사우스씨(Southsea)의 한 휴양 마을을 찾아가 고양이 스탠리(Stanley)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이웃의 올리브(Olive)가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스탠리는 주인이 올리브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발로 긁어 의식을 잃지 않게 했다. 스탠리는 그의 주인인 패트리샤 제임스(Patricia James)가 구조한 여섯 마리 고양이 중 하나이다.

상과 선물로 고양이 채식 사료, 고양이 침대, 담요, 장난감, 그리고 스승님의 책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고귀한 야생』을 전하자 패트리샤는 스승님의 사랑과 관대함에 감격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스탠리는 장난감 중 하나를 가지고 바닥을 굴러다니며 놀았고 패트리샤는 책을 열심히 읽어 내려갔다. 스탠리는 또한 패트리샤의 두 마리 개와 함께 채식 고양이 사료를 나눠 먹었다. 패트리샤의 말에 따르면, 스탠리는 침대와 담요를 아주 좋아해서 그날부터 밤이면 그곳에서 아주 흡족해하며 잘 잔다고 한다.

영웅 고양이 스탠리에게 상을 수여한 이번 활동은 정말 축복된 일이었으며, 그의 보호자는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오후 함께했던 이들은 모두 우리 동물 친구들의 고귀한 품성을 깨달았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진실로 고마워했다. ✨

♥♥♥♥♥♥♥♥♥♥ 고귀한 희생의 모범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 근 오클랜드와 타라나키(Taranaki) 동수들은 33인치 정도 되는 잭러셀 테리어 종인 영웅견 조지(George)의 주인인 알랜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전달했다. 조지는 뉴질랜드의 마나이아(Manaia)에서 산책하던 중 두 마리의 투견에게 공격받은 이웃 아이들을 구했다. 조지는 자신이 그다지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



빛나는 세계 영웅상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보다 두 배나 큰 두 마리 개에게 맞섰다. 용기 있고 헌신적인 조지는 공격을 받은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알렌은 스승님이 주신 상과 선물에 감동받았으며, 조지가 상패를 봤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복 어린 눈으로 스승님의 책 속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고선 여태껏 보았던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했다. 알렌은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면서 조지

의 고귀한 희생이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웅견 조지의 고귀한 희생에 매우 감사하고 존경을 표한다. 조지가 천국의 영원한 빛과 사랑 속에 편히 쉬길 기원한다. ✨

이 인터뷰와 시상식을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AW623.php>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전세계 위성 정보와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http://suprememastertv.com/satellite>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와 MP4 (다운로드용)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과 음악은 책, DVD, CD로 전세계 각지에 유통될 뿐만 아니라 MP3(오디오), MP4(비디오)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http://www.EdenRules.com>)과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면 목록 열람과 주요 내용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MP3

No. 15A (중국어)

천도와 해탈은 다른 것이다

1988. 11. 2. 포모사 핑둥 단체명상

No. 15B (중국어)

깨달은 스승의 힘은 무한하다

1988. 11. 3.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No. 79 (중국어)

우주 대사관

1989. 6. 2. 코스타리카 강연

No. 162 (중국어+영어)

지브란의 시 감상

1991. 4. 25.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No. 241A (중국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의사소통 방법

1992. 4. 1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No. 450 (중국어)

윤회의 원인

1994. 10. 9.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No. 737 (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법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단체명상

MP3 & MP4 노래와 시 공연

No. 765 (어울락어)

시공을 초월하여

칭하이 무상사 작사 · 작곡 · 노래

MP4

No. 761 (영어+어울락어)

사랑의 노래

2005. 2. 28. 헝가리 센터

No. 780 (영어)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2007년

No. 793 (영어)

단순하고 고귀한 삶

2007. 8. 21./ 24. 프랑스 파리 선상



핫



토

픽



Champion
of the Earth
2008

UNEP

유엔환경계획: 2008

지구 챔피언 수상자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4 월 22일과 4월 23일, 세계 각국의 고위층 대표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의 '2008 환경을 위한 전 지구 기업 정상회의(Business for the Environment Global Summit 2008)'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지구 환경 상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정상회의는 해마다 각기 다른 의제를 다루는데, 올해는 '자원 효율과 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전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그에 맞는 사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세계 각국 정부가 민간 기업이 움직일 때 의지할 수 있는 장려금과 체제를 제공해야 하며, 민간 기업과 기업가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호소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UNEP 회의에서는 '2008 지구 챔피언(The Champions of the Earth 2008)' 시상식도 개최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감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노력한 전세계의 유명한 과학자와 정치인, 운동가 7명에게 권위 있는 이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마우문 압둘 가이움(H. E. Maumoon Abdul Gayoom) 몰디브 공화국 대통령과 고렌 페르손(Goren Persson) 전 스웨덴 총리,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전 UNEP 사무총장 등과 같은 국제 고위 인사 및 대표들을 비롯해 고촉통(Goh Chok Tong) 전 싱가포르 총리와 여러 장관들, 대기업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의 '지구 챔피언'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수상 헬렌 클라크

모나코 알버트 2세 왕자

수단 선임 연구원이자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위원 발기스 오스만 엘라샤 박사

방글라데시 진보연구센터 사무총장 아티크 라흐만 박사

전(前) 바베이도스 환경에너지 장관 엘리자베스 톰슨

유엔재단 회장이자 전(前) 미국 상원의원 티모시 워스

예멘 전 수상 압둘 카데르 바 자말



UNEP 특별상
헬렌 클라크 총리

뉴 질랜드를 '탄소 중립 지대'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운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총리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을 환경 선구자로 만들었다. 클라

크 총리가 전개한 3대 주요 정책, 즉 '방출 무역 계획'과 '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전략'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흐름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단체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해 주길 호소함으로써 농업과 임업 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유럽
모나코 알버트 2세 왕자

모 나코의 군주로서 알버트 2세 왕자(Prince Albert II)가 처음으로 단행한 조치 중 하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2006년에 설립된 모나코 알버트 2세 재단(The Prince Albert II of Monaco Foundation)은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 물, 기후변화 대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왕자의 지도력 아래 모나코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양쪽 모두에서 모범적인 탄소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발기스 오스만 엘라샤 박사

수 단의 선임 과학자인 발기스 오스만 엘라샤 박사(Dr. Balgis Osman-Elasha)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이다. 기후변화와 국내 분쟁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강조한 그녀의 지구 온난화 시행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스만 엘라샤 박사는 또한 수단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교육시킴으로써 자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돕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아티크 라흐만 박사

아 티크 라흐만 박사(Dr. Atiq Rahman)는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방글라데시 진보연구센터(Bangladesh Center for Advanced Studies, BCAS)' 집행장을 맡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와 홍수의 타격을 받기 쉬운 지역이기에, 자국의 환경과 발전을 다룬 라흐만 박사의 많은 출판물은 동료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그는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북 대화(대부분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대부분 북반구에 있는 선진 국가 간의 경제 및 기타 문제를 가리킴)에 관한 혁신적인 대학원 과정을 개발했다.



남미·카리브 해
엘리자베스 톰슨

토 슨(Elizabeth Thompson) 여사는 환경 문제에 대해 군소개발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바베이도스에너지환경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제정했다. 또한 군소 도서 국가들에게 경제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성 평가에 착수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사회 계획을 추진하도록 장려했다.



핫



토

픽



북미
티모시 워스

유엔재단(United Nations Foundation)과 '더 나은 세상 재단(Better World Fund)' 회장인 워스(Timothy E. Wirth) 씨는 줄곧 환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 왔고, 수많은 자원을 동원해 생물종의 다양성, 기후변화, 재생 에너지에 이르는 위급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강력한 지지자인 워스 씨는 미국 국제문제담당 차관보로 재임하던 당시 '콜로라도 대자연 법안(Colorado Wilderness Bill)'을 발기했을 뿐 아니라 에너지·보존·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도 성공적으로 제정했다.



서아시아
압둘 카데르 바 자말

예멘 장관과 수상 재임 시절, 바 자말 각하(H. E. Abdul-Qader Ba-Jammal)는 예멘 수자원·환경·환경 보호국을 만들고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기금을 국내적·국제적으로 요청했다. 바 자말 각하는 또한 생물종의 다양성 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소코트라 군도(Socotra archipelago)를 보존하는 노력을 조직화했으며, 예멘의 몇몇 지역을 해양·육지 보호 구역으로 선포하는 데 지원하는 한편 해양 자원 보존에 중점을 둔 예멘 섬 개발을 위한 정부 기관을 설립했다.

이 일곱 명의 지구 챔피언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우리 지구를 축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길 기원한다. 🌸

출처: <http://www.unep.org/champ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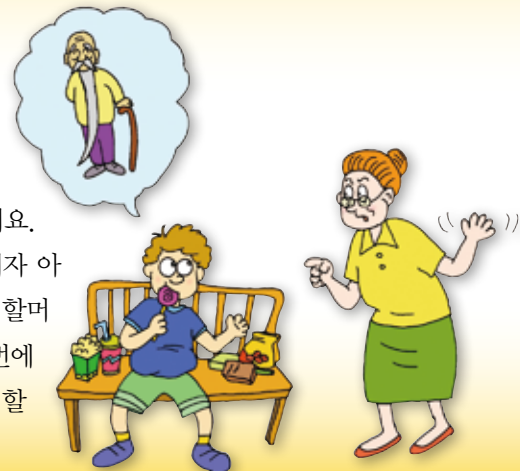


스승님의 농담

장수의 비결

청하이 무상사/ 2007. 8. 23. 프랑스 파리 선삼 (원문 영어)

한 꼬마가 공원에 앉아 뭘 먹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애야, 그렇게 단것만 먹으면 이가 다 썩어서 아프지 않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 저희 할아버지는 120살까지 사셨는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항상 너처럼 단걸 한 봉지나 한꺼번에 다 드셨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그러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신 일에만 신경 쓰셨지요.”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30 (영어+11개 언어 자막)

사랑으로 소통하라

2001. 12. 25./ 26. 국제적인 성탄절 축하


DVD 734 (영어+11개 언어 자막)

깨달은 스승의 사랑스런 감촉

2001. 12. 26./ 27. 국제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주요 내용:

스승님은 당신의 경험을 들어 순수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음식을 선택할 방법을 알려주신다. 몇몇 동수들은 동물들과 소통한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죽음을 앞둔 우리 개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 동물을 입양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한 동수는 동물들이 스승님의 강연을 듣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지능이 있으며 인간의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사례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이보어판 견본책자



이보어(Igbo)는 나이지리아·서아프리카의 약 1,8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개인 웹사이트나 포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하셔도 됩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에 있어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어서 견본책자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divine@Godsdirectcontact.org)

특별한 영상 세미나와 마하비르 상 시상식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15일, 대중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의 최근 베스트셀러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을 소개하는 영상 세미나가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첼시 올드타운홀(Chelsea Old Town Hall)에서 열렸다.

이날 저녁은 청중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인도 청년채식인(Young Indian Vegetarians, YIV)’ 대표들이 와서 스승님께 상을 수여했던 것이다.

YIV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맹세와 ‘우리의 사랑과 자비로써 모든 생명을 위해 폭력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목표를 사명으로 삼아 조직된 단체이다. 앞서 모든 존재를 향한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심을 알게 된 YIV 회원들은 스승님께 ‘마하비르 상(Mahaveer Award)’의 영예를 드리고자 했다. 이 상의 명칭은 2,500년 전에 살았던 자이나교의 깨달은 스승인 마하비르(Lord Mahavir)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세미나는 짧은 인사말로 시작된 다음 막간에 두 명의 연주자가 음악을 공연해 홀 안을 천상의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어서 ‘사랑의 길을 걷다(Walk the Way of Love)’ 비디오가 상영되자 청중들은 존경 어린 눈으로 열중해서 비디오를 시청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동수가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다.



니틴 메타 씨(오른쪽)가 마하비르 상을 수여하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고 있는 어린이.

YIV의 창립자인 니틴 메타(Nitin Mehta) 씨가 사랑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마하비르 상’을 수여했다. 한 동수가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해서 상을 받았다. 상패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마하비르 상

이 상을 칭하이 무상사께 수여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귀하의 사랑은 대양과 같이 깊습니다. 귀하는 전세계 모든 이들이 채식을 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물에 대한 귀하의 절대적이고 깊은 사랑은 인류에게 폭력을 멈추고 자비로워지라는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셨듯이 귀하께서는 우리 행성과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귀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Y.I.V. 2008년 4월 15일 첼시

칭하이 무상사는 '마하비르 상' 시상식에 직접 참가하시진 못했지만 다정한 서신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함으로써 참석한 이들에게 그 크나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

“훌륭한 ‘마하비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과 존경에 깊이 감사드리고, 비폭력과 채식을 널리 알리는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성을 지켜주는 단체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신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며 또한 영광스럽습니다.인류의 업적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찬양은 사람들을 일깨워 분명 모든 지구의 생명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고귀한 야생』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했다. 청중들은 동물 왕국을 향한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사랑으로 준비한 맛있는 채식 뷔페를 손님들께 대접했다.

영국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한마음으로 일하고 스승님의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

이번 행사와 '마하비르 상' 시상식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TV'의 보도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581.php>

주:

마하비르 스승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한 참고 사이트:

<http://www.cs.colostate.edu/~malaiya/mahavira.html>

YIV 관련 사이트:

<http://www.youngindianvegetarians.co.uk/>



『미국통』지 커버스토리

2008년 4월 제9권 4호 (원문 중국어)

미 국에 설립된 ‘스마트 비즈니스 서비스(Smart Business Services, SBS)’ 출판사의 『미국통(美國通)』지는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호 커버스토리로 칭하이 무상사를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중국 화교 사회에서 읽는 이 잡지는 이번에 칭하이 무상사를 특집 게스트로 초청했고 스승님은 1월에 SBS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후 자애로우신 스승님은 잡지를 위해 밤 새워 좀더 많은 정보를 쓰셨고 SBS 직원들에게 행복한 음력설을 기원하며 선물도 보내셨다.

중국어로 된 이 기사의 표제는 ‘사랑과 선량함으로 인류의 영성의 빛을 일깨우는 지상의 자비로운 천사: 저명한 박애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스승인 칭하이 무상사와의 인터뷰’로서, 칭하이 무상사의 전 지구적인 자선 활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스승님의 영적 가르침을 다루면서 고대의 스승인 케찰코아틀(Quetzalcoatl)의 가르침과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기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평화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의 노고를 서술했다. 다음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세상은 원래 평화로웠다. 우리 인간도 동물과 새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때로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그 압박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차츰차츰 이 보배로운 능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서서히 더 낮은 경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칭하이 무상사는 온정으로 세상을 감화시킨다. 동물과 새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환경을 보호하라. 이것이 바로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접근 방식이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그리고 『고귀한 야생』, 이 세 권의 책은 칭하이 무상사가 심혈을 기울인 결정체로서, 사랑과 선량한 마음에 대한 그녀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지름길이다. 그녀가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 신간 발표회에서 말했듯이, 모든 이의 내면에는 불성과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 스승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야라 비로소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물들은 인류가 내면의 사랑을 계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



량은 한 가정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승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존중과 사랑으로 동물을 대하라고 권한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보면 있는 힘껏 도와야 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스승님은 인류에게 환경 보호를 지지하는 행동을 취해 아름다운 지구를 구할 것을 충고한다. 부정적인 힘, 또는 아래로 미끌어지는 추세를 되돌려 인류를 안전한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과 과학에 의존하는 것 외에 덕과 자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재미 화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현지 문화에 융화하면서도 여러분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좋은 전통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컨대, 효도나 너그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 손님을 잘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요. 무엇보다도 신을 기억하세요. 선행을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기억을 안고 지상을 떠나게 됩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스승님은 중국에게 잘됐다고 하면서 중국이 이룬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또한 중국과 전세계가 함께하는 올림픽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기원하셨다. “이번 대회로 국가 간에 평화가 촉진되고 다른 인종 간에 이해와 우정을 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훌륭한 행사입니다.”

인터뷰 후에 잡지 출판사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상에 이토록 큰 기여를 해 오신 자비로운 스승님과 연락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스승님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스승님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포모사에 있는 스승님의 편집진 모두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마트 비즈니스사와 『미국통』지의 상세하고 사려 깊은 보도에 감사드린다. 모든 지역 사회에 유익한 소식과 일깨움을 전하는 고귀한 일에 종사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천국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

『어스』 잡지

아일랜드 창간 잡지사와 칭하이 무상사의 인터뷰 (원문 중국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4월 10일에 출판된 『어스(Earth)』 잡지 창간호에 칭하이 무상사와의 인터뷰가 실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와 그 거주민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전국 독자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아일랜드의 출판사 ‘미디어포스 아일랜드사(Media Force Ireland)’에 의해 제작된 이 잡지는 국내 최대 신문과 함께 배포되며 약 59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대성공이었다. 『어스』 사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아일랜드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성실한 업무에 감동하신 스승님은 잡지사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그들은 스승님의 사랑 어린 선물에 정말 기뻐하며 말했

다. “이런 감사의 표현은 거의 받지 못해요.”

다음은 『어스』 창간호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2006년에 개국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전세계에 영어로 방영되는 위성 채널로, 10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다.

보다 나은 세상을 장려하고 지구를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이 채널은 시청자들의 삶에 고귀함과 영성을 가져다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방영한다.

저명한 박애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스승인 칭하이 무상사는 최근 지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말하면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우리 행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돕고 있다고 했다.



질문: 스승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는 우리 행성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승님: 우린 뭔가 해야 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개개인마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uprememastertv.com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TV로 방송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요. 위성 TV로 시청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의 경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006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소 사육이 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스승님: 유엔 보고서에서는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축들이 내뿜는 가스나 동물 제품 생산과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가스가 인간으로 인해 방출되는 메탄가스의 37%를 차지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더 온실효과가 큼니다. 축산업은 또한 지구상의 아산화질소의 65%를 방출하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296배나 더 온실효과가 큼니다.

질문: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권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1. 채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동물 제품 사용을 완전히 줄여야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고 사용해야 합니다.

3. 모두가 두세 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몇 조에 달하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4.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5.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고, 교통편을 덜 이용하며,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뭐든 줄여야 합니다. ➡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suprememastertv.com과 al.godsdirectcontact.org를 방문하면 된다.

『고귀한 야생』 - 동물의 내적 세계를 탐험하는 창

『고귀한 야생』은 베스트셀러 작가 칭하이 무상사가 1년에 걸쳐 호수 변의 생태와 일부 야생 동물의 삶을 사진에 담은 결과물이다. 작가는 수행자의 예민함과 화가의 독특한 시각으로 자신의 호숫가 시골집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거주자들의 삶의 귀중한 순간을 포착해 독자들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피터 웨이다스(Peter Weidhaas) 씨는 현재 국제도서박람회위원회(Committee for International Book Fairs) 위원장이자 1975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집행장을 지냈는데, 『고귀한 야생』을 읽은 뒤 많은 독자들이 읽었으면 한다며 모두에게 추천했다. 이 책의 중문판은 출판 시장에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아 킹스톤 온라인 서점에서 곧바로 베스트셀러 1위로 부상했다. (사진 1) 영문판은 아마존닷컴에서 별 다섯 개의 최고 평점을 받고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8일부터 이 미국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사진 2) 최근에는 칭하이 무상사가 『고귀한 야생』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도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http://www.amazon.com/Noble-Wilds-Supreme-Master-Ching/dp/9868415233/>.

『고귀한 야생』은 야생동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보여 준다. 이 책에 담긴 귀하고 보기 드문 사진들은 아름다운 설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독자들에게 동물들의 내적 세계로 이끌어 주는 멋진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아마존닷컴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http://www.amazon.com/gp/blog/A2NAAHPJ9MC0IT/ref=cm_blog_dp_artist_blog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 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협력하는 맘 여성단체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파푸아뉴기니 카르카르 섬(Karkar Island)의 맘 마을(Mom Village)에 있는 소수의 바하이교 여성 신자들은 양성 평등과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바하이교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마을 주민 3천 5백 명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 지원소를 짓고자 기금을 모금했다. 이들의 계획을 알게 되신 칭하이 무상사는 이들 여성과 그 지역 사회를 좀더 돕기 위해 미화 1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카르카르 섬에는 의료 시설이 극히 드물다. 맘 마을 주민들은 대개 걸어서 10km 이상 가야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맘 여성들이 바하이 가르침에 힘을 얻어 2002년에 모금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06년에는 충분한 기금이 모여 전 지역 사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 의료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다.



스승님이 기부하신 미화 1만 달러에 대한 존 워커 씨의 영수증.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황금시대 5년(2008년) 4월 21일, 시드니에 있는 ‘바하이 예배당(Baha'i House of Worship)’에서 호주 바하이 협회 대표인 존 워커(John Walker) 씨에게 스승님이 보내신 수표를 비롯해 스승님의 최신 저서와 몇 가지 다른 선물을 전달했다. 워커 씨는 매우 고마워하면서 정중하게 맘 여성들을 대신해 수표와 선물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생활에 큰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제한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이 미화 1만 달러의 기부금과 책, 다른 선물들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맘 마을의 용감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축복받은 그들의 지역 사회가 건강과 행복,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란다. 

나미비아

나미비아 홍수 이재민에게 사랑과 지원을 전달하다

요하네스버그 뉴스그룹 (원문 영어)

동 식물 자원이 풍부한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의 광대한 사막으로 잘 알려진 나라이다. 올해 유례없는 강우로 인해 나미비아 북부 지역의 많은 곳에 홍수가 났다. 이 소식을 접하신 자비로운 스승님께서서는 즉시 동수들에게 이재민들을 도우라고 지시하시는 한편 미화 2만 달러를 아낌없이 기부해 구호 활동을 지원하셨다.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그곳 주민들의 곤경을 알게 된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4월 28일,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Windhoek)으로 날아간 동수들은 다음날에는 오샤나(Oshana) 지역의 오샤카티(Oshakati) 마을로 운전해 갔다. 우리는 도중에 정수용 약품과 담요, 유아용 분유, 비누 등 많은 구조 물자를 구입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오샤카티에 홍수 감시단을 구성해 대부분의 상황을 통제했다. 그들은 동수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제공하고 큰 도매 상점에서 구입할 것을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다. 동수들은 더 많은 식품과 위생품을 구입해 정부가 세운 창고로 운송해 매주 배분하게 하였다. 도매상 주인은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600개의 멜라닌 접시를 기부하는 한편 배달을 감독해 주고 가격도 저렴하게 계산해 주었다.

오샤카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 두 곳을 방문했다. 우리 팀은 적십자와 다른 비정부 기구와 함께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배포하였다. 이재민들은 절실히 필요했던 물품들을 받고 기뻐했다. 특히 아이들은 사탕을 받고서 뽀뽀이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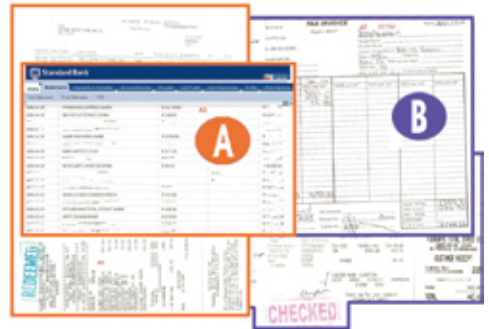


정말 스승님의 축복 속에 우리 임무는 모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밖에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 ‘SOS’ 전단도 나눠 주면서 사람들이 하루속히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선택해 미래의 재난을 감소시키길 희망했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나미비아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구호 물품(식품, 정수용 약품, 담요, 약)	137,859.68	A
교통비(비행기표, 트럭 렌트비, 주차비, 휘발유), 숙박비, 식사비, 장비	22,616.20	B
합 계	160,475.88 (미화 21,549달러)	



사랑의 바다에 잠긴 노인들

상하이 동수 (원문 중국어)

황 금시대 5년(2008년) 4월 27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10여 명의 청년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상하이 시내에 있는 한 양로원을 방문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맛있는 채식 식사를 두 끼 만들어 드리고 함께 채식 만두를 즐겼다. 또한 주변을 청소하고 예쁘게 단장하는 한편 한방 건강 상담과 안마요법도 제공했다. 이 밖에 재미있는 공연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렸다. 모두들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으며 모든 이의 마음이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겼다. ➡



2008년 포모사 내 자선·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총계: NT\$907,983 (미화 약 29,045달러)

표 1: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NT)

장소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장화	2008. 1. 1.	장화 시정부가 주최한 2008년 새해 등불 축제 및 기도회에 참여해 전단 배포 및 뜨거운 음료 제공.	2,870	A
지룽	2008. 1. 11.	지룽 '련안재단'의 노숙자 친구들에게 새해맞이 성금과 침낭 제공.	20,000	B
가오슝	2008. 1. 15.	가오슝 현의 불우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점심 급식비 지원.	200,000	C
이란	2008. 1. 20.	'뤄둥 노숙자 봉사 센터'에서 노숙자 친구들에게 연말 채식 만찬을 대접하고 따뜻한 목도리 선물.	12,000	D
미야오리	2008. 1. 20.	지역 사회의 이로움을 위해 시후 항공소가 시작한 가로등 결연 계획 지원.	10,000	E
타이난	2008. 1. 23.	타이난 밋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핑둥	2008. 1. 27.	완루안 향 신즈 마을과 라이이 향 이린 마을의 저소득 가정 및 빈곤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쌀과 새해 성금을 전달.	73,750	F
타이베이	2008. 1. 28.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1월 정기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영어 회화 및 채식 요리반 수업.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8. 1. 31.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8. 2. 4.	타이난 밋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8. 2. 4.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장화	2008. 2. 10.	현 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영성 서적을 기증해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생명 존중·동물 사랑'의 올바른 개념을 심어 줌.	32,808	G
타이베이	2008. 2. 29.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2월 정기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영어 회화 및 채식 요리반 수업. (동수 지원)	0	
자이	2008. 3. 1.	200여 마리의 개를 입양한 자비로운 왕위전 여사를 방문해 채식 개 사료 500kg을 기부.	10,710	H
타이난	2008. 3. 2.	타이난 현정부가 개최한 '2008 포모사 등불제'에 참여해 스승님의 만세등을 전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함.	10,997	I
타이베이	2008. 3. 25.	타이베이 룡산 중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스승님의 동물 관련 도서와 유익한 자료(전단, 서류 폴더, 테이블매트)를 선물해 동물 사랑의 이상을 함께 나눔.	30,276	J
장화	2008. 3. 26.	화탄 향 바이사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식 요리법 시연회를 개최해 자비로운 채식 생활 방식으로 지구를 구하자는 이상을 함께 나눔.	6,396	K
타이난	2008. 3.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8. 3. 27.	타이난 밋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8. 3. 27.	노숙자 친구들에게 200컬레의 작업복을 기증해 온정을 전함.	15,900	L
장화	2008. 3. 30.	사생대회에서 전단과 채식 샌드위치, 음료, 친환경 컵을 나눠 줌으로써 '채식과 지구 온난화' 환경 보호 개념을 공유함.	4,238	M
장화	2008. 3. 31.	현 내 각급 정부 기관과 단체에 영성 서적을 기증해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생명 존중·동물 사랑'의 올바른 개념을 심어 줌.	76,375	N



타이베이	2008. 3. 31.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3월 정기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영어 회화 및 채식 요리반 수업. (동수 지원)	0	
자이	2008. 4. 7.	'지구의 날'을 맞아 주춘초등학교에서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채식과 지구 온난화' 활동 개최. (동수 지원)	0	
자이	2008. 4. 13.	'자이 시 척수 손상자 협회'가 개최한 자선 바자회에 기금 전달.	10,000	O
타이베이	2008. 4. 14.	'지구의 날'을 맞아, 원주민들의 순수한 생각과 자연과의 소통 능력을 배워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만원주민문화산업 발전협회'에서 개최한 '세계 원주민 문화 회의'를 지원함.	169,644	P
장화	2008. 4. 14.	'지구의 날'을 맞아 장화 시에 '지구를 구하자' 광고판을 설치해 대중들에게 탄소 방출 감소의 필요성을 호소.	4,515	Q
이란	2008. 4. 19.	'지구의 날'을 맞아 위안산 향 이센 지역 사회에서 채식 시식회를 개최해 사람들에게 고귀한 식생활과 생활 방식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보호하자고 호소함.	10,000	R
화롄	2008. 4. 22.	'지구의 날'을 맞아 화롄 시정부와 임업국, 밍리초등학교, 쉼튼초등학교에 채식 요리를 제공하고 '채식과 지구 온난화'의 개념을 장려함.	26,504	S
타이난	2008. 4. 24.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동수 지원)	0	
이란	2008. 4. 25.	이란 현정부 교육국과 환경보호처에서 개최한 환경 보호 세미나에 참여, 채식 간식 제공.	12,000	T
타이난	2008. 4. 26.	'지구의 날'을 맞아 타이난 각지에서 '채식과 지구 온난화 백만인 서명 운동' 전개.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8. 4. 30.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4월 정기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 지도, 영어 회화 및 채식 요리반 수업. (동수 지원)	0	
총계:			738,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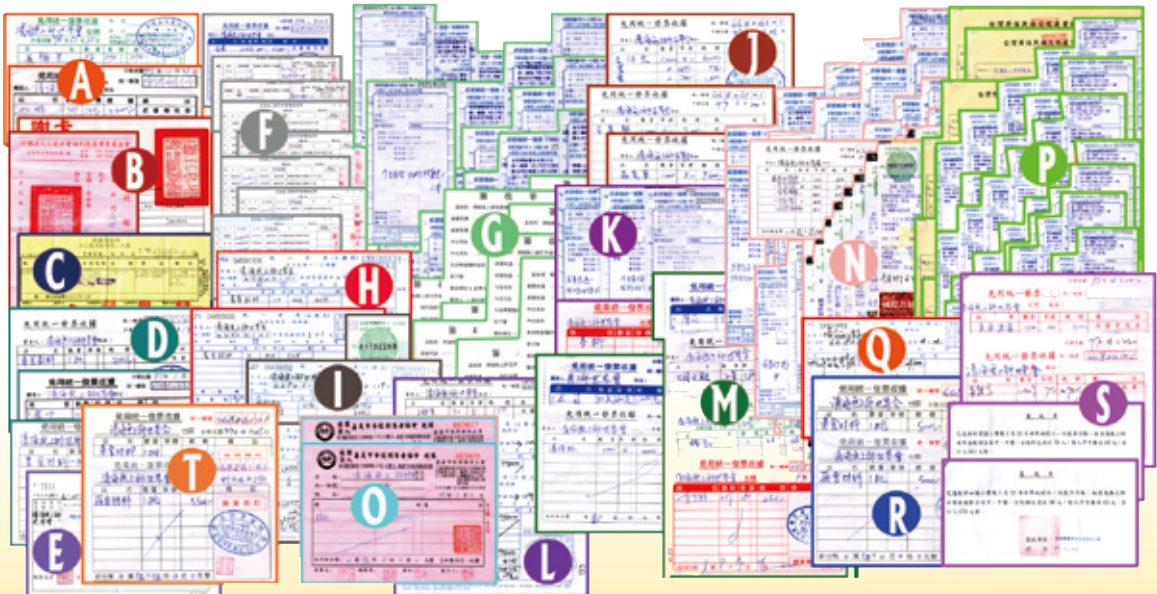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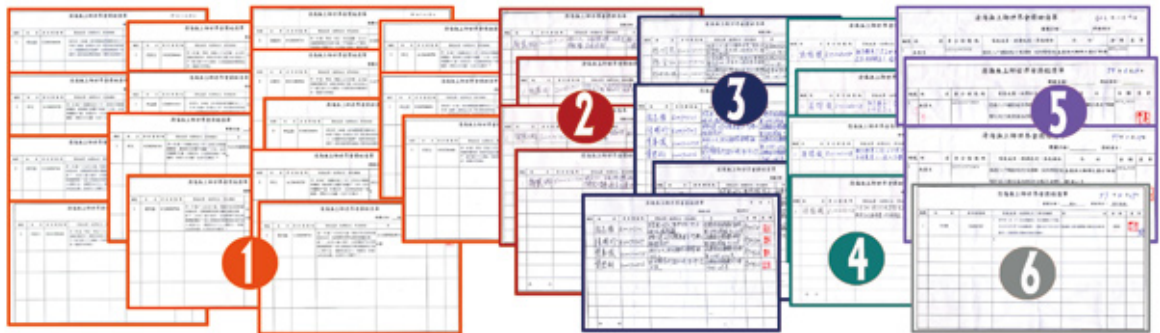


표 2: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전국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NT)

	1월		2월		3월		4월		
장소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타이베이	4	18,000	4	18,000	5	21,000	3	13,000	1
신주	1	4,000	1	4,000	1	4,000	1	4,000	2
미아오리	3	9,000	5	15,000	4	12,000	4	12,000	3
타이중	1	5,000	1	5,000	1	5,000	1	5,000	4
자이	1	3,000	2	6,000	1	3,000	—	—	5
타오위안	—	—	—	—	—	—	1	3,000	6
월별 소계:	10	39,000	13	48,000	12	45,000	10	37,000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이나 에덴동산(<http://www.EdenRules.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처인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처가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베냉:

-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 gmail.com
-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 gmail.com
-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t1 yahoo.ca
-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e Didier/ 229- 90 93 29 99/ smportonoovo yahoo.fr

* 부르키나파소:

- 와가두구/ Mr. YAMEOGO Honore/ 226-70 62 34 58/ honoreyam yahoo.fr

* 카메룬:

-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 gmail.com
-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 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 yahoo.fr
-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433473

* 가나:

-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 yahoo.com
-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 나이로비/ Center/ 254-020-8010897
- 나이로비/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 gmail.com
- 나이로비/ Mr. Harold Dudi/ 254-202081068/ Atmoske yahoo.com

* 모리셔스:

- 포트루이스/ Mr. Janesh KISTOO/ 230 945 4527/ janesh7 orange.mu

* 나이지리아:

- 예나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 802 8206/ bravilla yahoo.com

* 콩고공화국:

-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 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 yahoo.com
- 요하네스버그/ Mr. Tyrone Incendiario/ 27 83 468 7001/ tyronein jhb.stormnet.co.za

* 토고:

-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 42 76/ jdossouvifr yahoo.fr
-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 09 48/ smkpalimetogo gmail.com
- 로메/ Mr. GBENYON Kuakivi Kouakou/ 228-902 72 07/ kgbenyon yahoo.fr
-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 78 44/ mmylg yahoo.fr

* 우간다:

- 캄팔라/ Ms. Kigoonya Rosalyn/ 256-772-675436/ debieshan yahoo.com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Mr. Pablo Baez/ 54-11-4381-9666/ hailovemaster hotmail.com

* 볼리비아:

-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 hotmail.com

* 브라질:

-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 yahoo.com.br
- 고이아니아/ Mr. Eusmar Rodrigues Martins/ 55-62-96016636/ golianiacenter gmail.com
- 레시페/ Recife Center/ recifecenter gmail.com
-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vasconcelosdeoliveira.maria gmail.com

- 상파울루/ Center/ 55-11-5904-3083, 55-11-5579-1180
- 상파울루/ Liaison office/ 55-11-5083-7227/ sp contato@direto.comdeus.org
- 상파울루/ Mrs. Marcia Mantovaninni/ 55-11-3083-5459

* 캐나다:

- 에드먼튼/ Mr. Tuan Anh Phan/ 1-780-235-7578/ minokimba999 yahoo.ca
- 런던/ Center/ Mr. Bill Barton/ 1-519-4952215/ bbarto2162 rogers.com
- 몬트리올/ Center/ 1-514-277-4655
- 몬트리올/ Mr. Terrian, Terry/ 1-514-764-3534/ tterrian yahoo.com
- 오타와/ Center/ ottawacentre gmail.com
- 오타와/ Ms. Sonal Pathak/ 1-819-770-5516/ sjpathak36 hotmail.com
- 토론토/ Center/ 1-416-503-0515

- 토론토/ Mr. Calvin Nhat Nguyen/ 1-647-289 2142/ alpeace,nhat gmail.com

- 밴쿠버/ Mr. Gary Chen/ 1-604-710-7896/ gcheaven gmail.com

- 밴쿠버/ Mrs. Lisa Hollingberry/ 1-604-725-8687/ noblelife ymail.com

* 칠레:

- 라세레나/ Mr. Ruben Augusto Bonilla Araus/ 56-92967880/ ruboar hotmail.com
-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 yahoo.com
-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 gmail.com

* 콜롬비아:

- 보고타/ 센터/ Ms. Yudy Liceth Guzman perdomo/ 57-3003932587/ lucykuanyin gmail.com

* 코스타리카:

-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산호세/ Ms. Gabriela Azofeifa Murillo/ 50622 80 47 35/ gabrielaazofeifa racsa.co.cr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Mrs. Ondina Corrales Flores/ 504-222-7733/ ondicoteg yahoo.com

* 멕시코:

-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 hotmail.com
- 멕시코 주/ Ms. Laura Lopez Aviles/ 52 55 58521256, 52 55 13974330/ texcenter gmail.com
- 몬테레이/ Mr. Humberto Martinez/ 521-81-1500 6818/ martinezrdzh gmail.com

* 니카라과:

- 마나과/ 센터/ 505-248-3651/ pastora7iglesia yahoo.com

* 파나마: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r. Cesar Ravel Sanjur Barrera/ 507-6707-2509/ ravelsanjur gmail.com

* 파라과이:

- 시우다드델에스테/ Mr. & Mrs. Italo Acosta/ 595-61-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 hotmail.com

* 페루:

- 쿠스코/ Ms. Angelica Garcia Yanez/ 51-19-96138612/ agyrom hotmail.com
- 리마/ Ms. Ceterini Guillen Llanos/ 51-1 988950111/ joceami lycos.com
-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 hotmail.com

- 수리남/ Mrs. Nian Li, Chen/ 597-8664577/ nianli,2006 yahoo.com.cn

* 베네수엘라:

-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la33 yahoo.es

* 미국:

-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 애리조나/ Mr. Elie Firzi/ 1-602 692 5035/ pelikan cox.net

- § 아칸사스: Ms. Cynthia Hudson/ 1-479-981-1858/ arkansascenrter1es cox.net

- § 캘리포니아:

-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 yahoo.com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 yahoo.com

-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 yahoo.com

-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 yahoo.com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 juno.com

- 샌디에이고/ Mr. Yichuan Pan/ 1-858-829-6406/ quanyinsd gmail.com

- 샌디에이고/ Ms. Linh Ngoc Lien/ 1-619- 640-2489/ lienlinh gmail.com

- 샌프란시스코/ Mr. Blaise Scavullo/ 1-510-526-5474/ blaise.scavullo gmail.com

- 새너제이/ Ms. Crystal Silmi/ 1-510-421-2095/ crystalilmi hotmail.com

-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 hotmail.com

-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 yahoo.com

- § 콜로라도: Mrs. Rachel Marzano/ 1-720-229-0446/ Rachel rippleeffectdesign.com

- § 플로리다:

-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 gmail.com

- 케이프코랄/ Mr. Long Huynh/ 1-239-593-1541/ cccilsaints gmail.com

-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 yahoo.com

- § 조지아: Mrs. Mireille Whritenour/ 1-770-856-5421/ georgiacenter hotmail.com

-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 gmail.com

- § 일리노이: Ms. HaRim Lee/ 1-773-351-5957/ sm,illinois gmail.com

-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eb sbcglobal.net

- § 캔터키:

-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 yahoo.com
- Louisville/ Mr. Lei Wang/ 1-502-644-2804/ wanglei300 gmail.com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 hotmail.com

\$ 메릴랜드: Ms. Joy Su/ 1-443-812-2681/ joyxiaominsu gmail.com

\$ 메릴랜드: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 hotmail.com

\$ 메사추세츠:

- 보스턴/ Center/1-978-528-6113/ bostoncenter2008 yahoo.com
- 보스턴/ Ms. Brooke Guthrie/ 1-415-412-1336/ MotherEarthRocks yahoo.com
- 보스턴/ Mrs. MyDung Truong/ 1-617-480-2450/ mdtuong51 yahoo.com
- 보스턴/ Ms. Li-Yu Chen/ 1-781-228-1941/ Lywlolus yahoo.com,tw
- \$ 미시간: Ms. Jeanne Minier/ 1-517-667-0697/ michigancenterusa gmail.com
- \$ 미네소타: Mr. & Mrs. Hoang Ta/ 1-952-226-4203 8/ yolanta66 yahoo.com
- \$ 미주리: Ms. Mary Ella Steck/ 1-573-230-3843/ maryellasmvtv gmail.com
- \$ 뉴멕시코: Mrs. Nga Truong/ 1-505-256-3104/ ntruongnm yahoo.com
-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 gmail.com
- \$ 뉴저지: Mr. Hero Zhou/ 1-973 - 960 6248/ yb_zhou hotmail.com
- \$ 뉴저지: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 yahoo.com
-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 yahoo.com
- \$ 뉴욕:
- 뉴욕/ Ms. Heidi Murdock/ 1-516-991-4317/ heidimurdock yahoo.com
- 뉴욕/ Ms. Woan-Hwa Renee Sytwu/ 1-973-462-8867/ rsytwu.nycenter gmail.com
- \$ 노캐롤라이나: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 hotmail.com
- \$ 오키오: 센터/ centerohio gmail.com
- \$ 오하이오: Mr. Sutschenko, Aaron/1- 513-325-9000/aaron loveforce.net
- \$ 오클라호마: Mrs. Tran, Thao/ 1-918-292-8884/ smtu2007 cox.net
- \$ 오리건: Mrs. Xuan Cheng/ 1 - 541 - 9054073/ xuan.cheng2008 gmail.com
- \$ 펜실베이니아: Mrs. Thao Le/ 1-717 432 0720/ thaocppa yahoo.com
-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 yahoo.com
- \$ 텍사스:
- 오스틴/ Center/ 1-512-396-3471/ jidawu yahoo.com
- 오스틴/ Mr. Hien Nguyen/ 1-512-300-8929/ hienng yahoo.com
- 댈러스/ Center/ 1-214-339-9004/ DallasCenter yahoo.com
- 댈러스/ Mr. Tom Venum/ 1-360-223-0855/ tom_vennum yahoo.com
- 댈러스/ Mr. Quang Nhat Vuong/ 1-682-203-8310/ imquangvuong yahoo.com
- 댈러스/ Ms. Xiaoyun Liao/ 1-214-280-0621/ Sharon_xyiliao yahoo.com
- 휴스턴/ Center/ 1-281-955-5782
- 휴스턴/ Mrs. Ariane Liao/ 1-713-774-5234/ aikipiano yahoo.com
- 휴스턴/ Ms. Judy Peng/ 1-281-7944464/ judyjpeng hotmail.com
- 휴스턴/ Mrs. Van Le Ngoc/ 1-832-3671187/ phivanlove yahoo.com
- 샌안토니오/ Mr. Adam Gomez/ 1-210-313-5023/ adamdgomez hotmail.com

\$ 버지니아

- 워싱턴 DC/ Center/ 1-703-997-1622/ VA_Center yahoo.com
- 버지니아/ Mrs. Elaine Yu/ 1- 703 533 1787, 1-571-2787457/ eyu1217 gmail.com

\$ 워싱턴:

- 시애틀/ Mr. Hoang Nguyen/ 1-206-393-2852/ smch.seattle gmail.com

\$ 루에르토리코: Mr. Michael E. Jeffers/ 1-787-231-0878/ prcenter live.com

\$ 루에르토리코: Mrs. Sonia Alfaro Jaco/ 1-787-512-0286/ prcenter live.com

*아시아

• **아제르바이잔**/ 바쿠/ Mr. Ahmad Shahidov/ +994-50 205 91 91/ ahmad_shahidov hotmail.com

*포모사:

-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 msa.hinet.net
- 타이베이/ Mr. Lee, Ming-Chien/ 886-988134955/ newhalo gmail.com
- 미아오리/ Mr. Chang, Jung Yao/ 886-918917032/ smyaoyu gmail.com
- 미아오리/ Mrs. Su Hsueh, Fang-Hsiu/ 886-911-765211/ show0911765 yahoo.com,tw

*홍콩:

- 홍콩/ 센터/ 852-27495534
- 홍콩/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 yahoo.com

*인도네시아:

- 발리/ Center/ 62-361-231-040/ smch_bali yahoo.com
- 발리/ Mr. I Nyoman Widya/ 62-81558068909/ qomink2006 yahoo.com
- 자카르타/ Center/ 62-21-6319066/ smch-jkt dnet.net.id
- 자카르타/ Ms. Faye Yowargana/ 62-815-9982537/ tayebright gmail.com
- 말랑/ Mr. Rudy Setiawan/ 62-81-8330375/ rudy_zhang yahoo.com
- 메단/ Center/ 62-61-4514656/ smch_medan hotmail.com
- 메단/ Ms. Erika Wijaya Ng/ 62-85664065425/ universallove333 gmail.com
- 수라바야/ Center/ 62-31-3810166
- 수라바야/ Ms. Sri Riki Rejeki/ 62-818316181/ tabitha,hanna gmail.com
- 욕야카르타/ Mr. Udjang Harjanto/ 62-274-897161/ udjang.harjanto yahoo.com

* 이스라엘:

- 텔아비브/ Mrs. Talya Tal/972-50-8511720/ tal,talya gmail.com

*일본:

- 군마/ Ms. Rieko Yamazaki/ 81-90-4062-3205/ Vegan.pie gmail.com
-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 k7,dion.ne.jp
-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flute gmail.com
-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 yahoo.co.jp
- 오사카/ 센터/ smchtoosaka gmail.com
-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 yahoo.com
- 타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 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 7 9511993/ estaphuam hotmail.com

*인도/

- 뭄바이/ Bipin Thosani/ 91-9833086680/ bipinthosani gmail.com

*대한민국:

-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121@yahoo.co.kr
-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 서울/ 조순복/ 010-2494-3455/ a811439@hanmail.net
-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 부산/ 변환웅/ 010-6657-9736/ byunwhan@gmail.com
-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대구/ 홍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 대구/ 김정순/ 011-503-4302/ yubabba@hanmail.net
-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 인천/ 공미희/ 016-475-5303/ kmeehee2000@yahoo.co.kr
-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 안동/ 김신택/ 010-2507-3047/ ktjb@korea.com
- 울산/ 센터/ 052-224-4111
-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 원주/ 센터/ 033-763-9358
-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 청옥/ 센터/ 054-673-1399

*라오스:

- 비엔티안/ Mr. Thongphet Sithammavong/ 85620-5700785/ tpsithammavong hotmail.com

*마카오:

-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ivlove yahoo.com,hk
-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말레이시아:

- 알로르세타르/ Ms. Chin Chai Yean/ 60-19-4118298/ jellyyeen yahoo.com
- 조호르바루/ Mr. Wang Ah Sang/ 60-16-7220779/ wangahsang yahoo.com
-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 3904
- 쿠알라룸푸르/ Ms. Too Choon Lian/ 60-17-342 2238/ dottoo22 gmail.com
- 쿠알라룸푸르/ Ms. Chung Lee Woon/ 60-12-275 0196/ lwoon.chung yahoo.com
- 페낭/ Center/ 60-4-2285853/ pgsrmch streamyx.com
- 페낭/ Ms. Yeap Boey Khim/ 60-16-4563129/ oceanlove08 gmail.com
- 페라크/ Mr. Ling Leong Hor/ 6019-5572655/ lh.sitiawan gmail.com
- 페라크/ Ms. Chong Sin Foong/ 6012-5173312, 605-288-2342/ sinvege85 yahoo.com

*몽골:

- 울란바토르/ Mrs. Gereltuya Gombosuren/ 976-99984038/ gaagneeg yahoo.com
- 울란바토르/ Mr. Bayarbal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 yahoo.com
- 코틀/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 yahoo.com
- 코틀/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 yahoo.com

* **미얀마**: Ms. Thin Thin Lwin/ 95-42-24373/ 95-9-8550401/ thinthinlwin28 gmail.com

*네팔:

- 카트만두/ Mr. Amit Karki/ 977-9841023500/ amitmanav yahoo.com

*필리핀:

- 마닐라/ Center/ 63-2 875 6609/ phi.loveocean,mnl gmail.com
-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462/ chauthuykim yahoo.com

- * **싱가포르:**
 - 싱가포르/ Center/ 65-6741-7001/ chinghai singnet.com.sg
 - 싱가포르/ Mr. Foo Tack Ming/ 65-9137 1800/ ftmnw64 singnet.com.sg
- * **스리랑카:**
 - 콜롬보/ Mrs. K.M. Deepa Niroshinee/ 94-25-4906334/ samanthalknr gmail.com
 - 빌라치치야/ Mr. & Mrs. D.M.S. Bandara/ 0776210628/ samanthalknr yahoo.com
- * **태국:**
 - 방콕/ Center/ 66-2-674-2690/ bkcc66 gmail.com
 - 방콕/ Mrs. Wanpen Kanchanaprapin/ 66-81- 641-0312/ wanpensm gmail.com
 -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 hotmail.com
 -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ccpcr gmail.com
 - 치앙마이/ Mr. Li Yaolong/ 66-84616 2846/ yaolongli gmail.com
 - 송클라/ Mrs. Roongtiwa Angkarplaong/ 66-45-633-159, 66-84-891-3009
- * **아랍에미리트:**
 - 아부다비/ Mr. Dhira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 yahoo.com
- ❖ **유럽**
- * **오스트리아:**
 - 빈/ 센터/ 43-676-6305498/ wiencenter gmail.com
 - 빈/ 연락인 사무소/ 43-650-8420794/ ngocdany yahoo.com
- * **벨기에:**
 - 브뤼셀/ Mrs. Bertrand Helene/ 32-485-850609/ qybelgium yahoo.com
- * **불가리아:**
 - 소피아/ Ms. Silvia Markova/ 359-899-171-950/ quanyinsofia gmail.com
 - 플로브디브/ Ms. Radoslava Nikova/ 359 889 514 604/ quanyinplovdiv gmail.com
- * **크로아티아/ Ms. Dorotea Žic/ 385-98-378165/ tebudd gmail.com**
- * **체코:**
 - 프라하/ Center/ 420-261-263-031/ czech-center spojenisbohem.cz
 -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 spojenisbohem.cz
- * **핀란드:**
 -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 yahoo.com
 -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dungparaliis888 hotmail.com
- * **프랑스:**
 - 알사르/ 센터/ Mr. HENRION Arnaud/ 33-3-89-77 0607/ allmightylove gmail.com
 -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 wanadoo.fr
 - 파리/ 센터/ 33-1-4300-6282
 - 파리/ Mrs. JANICKA Ewa/ 33-6 14 82 75 85/ 33-142 08 58 93/ contactdivin gmail.com
- * **독일:**
 - 베를린/ Mr. Jan Schwabe/ 49 - 0151- 211 42 607/ berlincenter quanyin.info
 -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a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 yahoo.de
 - 프라이부르크/ Ms. Elis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 surfeu.de
 - 함부르크/ Ms. Dan Li/ 49-15229550177/ lidanli.gmx.de
 - 뮌헨/ Ms. Ley Lan, Rickens/ 49-17648248962, 49-40-79308103/ leyland.rickens.org
 -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 yahoo.de
- * **그리스:**
 - 아테네/ Mr. John Makris/ 30-210 8660784/ johnmackris yahoo.co.uk
- * **헝가리:**
 -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 gmail.com
 -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 gmail.com
 -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 gmail.com
-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 - 5811962/ reykvjavik_center yahoo.com**
- * **이탈리아:**
 -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333-617-8600/ bettina.adank gmail.com
 - 캄포바소/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 gmail.com
- * **아일랜드:**
 -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 yahoo.co.uk
 -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 gmail.com
- * **노르웨이:**
 -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 gmail.com
- * **폴란드:**
 - 슈체친/ Ms. Joanna Likierska/ 48-608 662 682/ quanyin_asia interia.pl
 - 바르샤바/ Mrs. Renata Lipińska/ 48-792 237 643/ renata.lipinska gmail.com
- * **포르투갈:**
 - 리스본/ Mrs. Zenaide Alves Bontim/ 351 212216877/ r.crociqia yahoo.com.br
- * **루마니아:**
 - 부차레스트/ 센터/ 358-443338893/ bucharestay yahoo.com
- * **러시아:**
 -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 mail.ru
- * **세르비아 :**
 -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ć/ 381642748820/ majazemun yahoo.com
- * **슬로바키아:**
 -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 spojenisbohom.sk
- * **슬로베니아:**
 - 류블라나/ Mr. Damjan Kovačić/ 38640236433/ qy4ever yahoo.com
 - 류블라나/ Center/ 386-1-518 25 42/ quanyin siol.net
 - 류블라나/ Mr. Benjamin Boršek/ 38631464398/ forevershinelove gmail.com
 - 마리보/ Mr. Igor Gaber/ 38641592120/ igorgaber mail386.com
- * **스페인:**
 - 마드리드/ Mrs. Maria Jose Lobo Cardaba/ 34 675389788/ mjoselobo2004 yahoo.es
 - 마드리드/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 hotmail.com
 -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 yahoo.es
 -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u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 gmail.com
- * **스웨덴:**
 - 앙엘홀름/ Mrs. Helen Tielman/ 46-70-5719057/ qysouthsweden gmail.com
 - 오리/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 yahoo.se
 - 스톡홀름/ Ms. Elizabeth Dabrowska Hagman/ 46-76-84 80 978/ elizabeth.dhagman telia.com
 - 옌실라/ Ms. Youwei Wang/ 46-73 789 6019/ youwei broadband.net
- * **스위스:**
 - 제네바/ Mrs. Eva Gyurova/ 33 633 60 11 91/ gyurovi yahoo.com
-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 hotmail.com
 -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 planet.nl
- * **영국 연방:**
- § **잉글랜드:**
 - 임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 gmail.com
 -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 googlemail.com
 - 런던/ Ms. Simone Alves Moraes/ 44 7791 368 861/ simone1freelancer yahoo.co.uk
 - 서리/ Ms. Leong Siew Yin/ 44-7760275088/ surrey.centre yahoo.co.uk
- § **스코틀랜드:**
 - 페이즐리/ Mr. Nelson Wilson/ 44-7799536861/ nelsonwilson hotmail.co.uk
- ❖ **오세아니아**
- * **호주:**
 - 애들레이드/ Ms. Hoa Thi Nguyen/ 618 - 82813428/ hoathinguyen y7mail.com
 - 브리즈번/ Ms. Renata Halpin/ 61-412 775 678/ renatahalpin hotmail.com
 - 브리즈번/ Ms. Jayita Belcourt/ 61-4-0976 1005/ jayita.amrita.com.au
 - 캔버라/ Mrs. Tieng thi Minh Tam/ 61-2-6100-6213/ tam.tieng gmail.com
 - 멜버른/ 센터/ melbsmch aol.com
 - 멜버른/ Ms. Jenny McCracken/ 61- 431 587 830/ jam2arts mac.com
 - 멜버른/ Mr. Nguyen/ 61-422 113 775/ danhnguyen2475 yahoo.com.au
 - 멜버른/ Ms. Wei Feng/ 61-414 839 533/ wfwisdom gmail.com
 -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 6550 4455/ goldenagecenter gmail.com
 - 노던리버스/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 6624 7209/ byronbaycentre gmail.com
 - 퍼스/ Ms. Yennhi Nguyen/ 61-8 9375 1484/ yennhi_nguyen yahoo.com
 - 시드니/ Mrs. Kathy Divine/61-2- 9891 5609/ universalove22 yahoo.com.au
 -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 6 22 33 11 8/ ray_dixon bigpond.com
- * **뉴질랜드:**
 - 오클랜드/ Mrs. Elisa, McLean/ 64-9-482 3244/ elisa.xnet.co.nz
 - 크라이스트처치/ Mrs. Juannan Wang/ 64-21-1624018/ shalina18 hotmail.com
 - 해밀턴/ Mr. Dean Niki Powell/ 64-7-8566496/ hamiltoncp yahoo.co.nz
 - 웰스/ Mrs. Sheree Arden Beer/ 64-21-428034/ Sheree.Arden.Beer gmail.com
 - 웰링턴/ Mrs. Aryan Tavakoli/ 64-4-5270063/ aryan 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52 (어울락어+14개 언어 자막)

사랑의 만남

2002. 9. 15. 어울락 화상회의

주요 내용:

이 화상회의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힘들고 간혀 있는 상황에서 건설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수행을 진보시키라고 가르치신다. 때로 육체는 발버둥치고 반항하며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에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격려하신다. “우리 육체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내면의 지혜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기 때문에 때로는 두 힘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수행해서 높은 등급에 이르면 이런 긴장은 사라집니다.” 또한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확실히 순수한 채식에 섭취해 몸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한편 스승님의 음악은 우리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내면의 체험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



DVD 785 (중국어+13개 언어 자막)

마음으로 신을 기억하면 운명이 좋아진다

2007. 2. 25.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주요 내용:

스승님은 전래동화를 들려주시면서 늘 신을 기억해야 하며, 그럴 경우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신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신다. 천 년을 산 거북이는 진주에 집착한 나머지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부지런히 수행했는데도 해탈하지 못했다. 오직 깨닫고 집착을 버렸을 때라야 비로소 거북이는 소원하던 대로 인간의 몸을 얻고 관음법문을 수행해 결국에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스승님은 수행자는 정말 그들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수행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정부는 훌륭해진다. ➡



DVD 810 (영어+12개 언어 자막)

천국의 사랑스런 지원

2007. 10. 28. 프랑스 파리 선삼

주요 내용:

스승님은 종교에 대한 재미있는 농담을 많이 들려주시며 “농담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라고 알려주신다. 또한 스승님은 ‘수박 서리꾼’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스승은 때로 사람들의 생활과 수준에 동화되기 위해 전통적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신다. 이 밖에 스승님은 무슬림 스승인 물라 나스루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변한다고 상기시켜 주신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96 (영어+12개 언어 자막)

신이 인류에게 보내 준 수호천사

2007. 8. 24. 프랑스 파리 선삼

DVD 797 (영어+11개 언어 자막)

신의 뜻은 깨달은 스승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7. 8. 25. 프랑스 파리 선삼

주요 내용:

동 물들은 각자 선물을 가져온다. 그들은 진실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스승님은 당신의 개와 새들이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알려주신다. 어떤 동물은 스승님께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나쁜 사람을 멀리 내쫓으며,

어떤 동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기시켜 준다. 모든 동물은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며, 완전히 신에게 의지해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얻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신과 접촉하고 있다. 예전 대 소는 매우 높은 세계에서 내려왔으며, 돌고래와 고래는 환경에 대해 매우 우려하면서 빙하의 해빙 속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안다. 스승님은 아씨의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예로 들어 큰스승들은 큰스승 나름의 단순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해야 할 일을 한다. ➔



DVD 827 (영어+12개 언어 자막)

전력을 다해 환경 위기를 해결하자

2008. 2. 28. 오스트리아 선삼

주요 내용:

환 경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승님은 말씀하신다.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채식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동수들은 UFO의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로 에너지’ 발전기를 발명한 과학자 등 최근의 발전된 기술에 관한 소식을 스승님과 나누었다. 스승님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당신의 시 ‘아기 돼지의 말’

이 방송된 후 13만 명이 채식주의가 되었음을 밝히셨다! 우리가 더 이상 소나 동물을 사육하지 않는다면 동물들에게서 더 이상 메탄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게 되어 지구는 보다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일 모든 정부와 대중 매체가 개입해 “정말 위급합니다! 모두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한다면 탄소 배출이 증가하지 않게 되어 지구가 회복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지금 현 상태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있다. ➔

